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자습서



정답 및 풀이

1 언어와 매체의 본질

(1) 언어와 국어

꼭지 시험

» 12~13쪽

- 01 (1) × (2) ○ 02 (1) 사회 (2) 눈 (3) 문화 03 (1) ○
 (2) × (3) ○ 04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였다.
 05 (1) 목적어, 서술어 (2) 된소리, 거센소리 (3) 앞

탐구 1 언어와 우리의 삶

» 14~16쪽

- 01 ⑤ 02 ① 03 ③ 04 ⑤
 05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

01 인간의 언어는 내용(의미)과 형식(말소리)이 분리되어 서로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이를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02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오답 풀이

②, ③, ⑤, 인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게 되고, 또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즉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한다.

④ 언어는 인간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03 <보기>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준다. 이는 지역어라는 사회적 특성이 언어에 드러난 것이다.

04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어 내고 축적해 왔으며, 언어를 도구로 하여 이러한 문화적 산물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으므로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이기도 하므로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②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므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05 <보기>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눈과 함께 생활해 온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활동 연구

» 17~19쪽

- 01 ④ 02 인식 03 ④ 04 ②
 05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에 06 ③ 07 ③
 08 ④

01 (가)를 통해 개인의 심리에 관한 내용을 추론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4세 아동과 17세 청소년이 ‘물’에 대해 구사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나이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달라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③ 4세 아동보다 17세 청소년이 더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사고력이 발달하면서 언어 구사 능력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⑤ 4세 아동보다 17세 청소년이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02 실험 결과를 통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언어를 이용하여 사물을 범주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그림이라도 어떠한 이름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03 (가)를 통해 나이에 따라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언어 표현도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인간의 사고방식이 언어 표현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사고가 언어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에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물을 범주화하여 인식함을 알 수 있다.

③, ⑤ (가), (나)를 통해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 사고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사고 능력 발달은 언어 구사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04 <보기>의 단어들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는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신조어들이다.

05 <보기>는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에 차별적 느낌을 없애고 전문성을 살린 명칭으로 교체한 단어들이다.

06 ‘쌀을 짓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밥을 짓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07 영어에 비해 한국어에 ‘쌀’과 관련된 명칭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서 쌀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08 밥을 안쳤다고 할 때의 ‘밥’은 일반적으로 쌀을 씻어 물을 알맞게 붓고 끓여 익힌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에서의 ‘밥’은 모두 끼니로서의 음식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탐구 2 국어의 특성

20~21쪽

01 ③

02 색채어가 발달하였다.

03 ③

04 ④

01 국어의 자음은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ㅅ, ㅆ, ㅈ’처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대립한다.

오답 풀이

① 국어에는 ‘ㄱ, ㅆ, ㅎ’이라는 마찰음이 존재한다.

② 대부분의 서양 언어에서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가 서로 대립한다. 국어 음운에서는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가 대립하지 않는다.

④ 국어의 음운에는 마찰음 ‘f, v, th’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다.

⑤ 국어 음절의 첫소리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

02 국어에는 같은 계통의 색이라도 미묘한 느낌의 차이를 표현하는 색채어가 발달하였다.

03 국어의 조사와 어미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즉, 조사와 어미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문법적 의미만 지닌 형식 형태소이다.

04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어를 통해 한국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낫다는 우월함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아니다.

활동 연구

22~24쪽

01 ④

02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해 있다.

03 ②

04 듣는 사람이 누구

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진다.

05 ⑤

01 국어에는 ‘f’와 ‘th’와 같은 마찰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음운들을 한글로 표기할 때 정확한 발음대로 표기할 수 없다. 따라서 ‘f’를 ‘ㅍ/ㅎ’, ‘th’를 ‘ㅅ/ㅌ’으로 표기하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02 국어에는 모음 조화를 활용하거나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대립을 활용하여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해 있다.

03 국어의 문장은 ‘주어-목적어-서술어’가 기본 어순이지만,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순의 변화가 자유로운 편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영어 문장은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을 취하고, 국어 문장은 ‘주어-목적어-서술어’ 또는 ‘목적어-주어-서술어’의 어순을 취하므로 국어와 영어 문장의 어순이 항상 동일하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③ <보기>에서 영어 문장은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으로 표현되고 있다.

④ 체언에 조사가 붙어 문장 성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국어의 특징이다.

⑤ 국어 문장은 <보기>의 ‘제니퍼를 팀이 좋아한다.’와 같이, ‘목적어-주어-서술어’의 순서를 취할 수 있다.

04 같은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선생님일 때와 꼬마일 때 높임 표현이 달라지고 있다.

05 (가)를 통해 세계 각지에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나)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취업과 같은 실용적 목적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 한국 교민들이라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26~28쪽

01 ④

02 예시 답안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03 ①

04 ⑤

05 ③

06 ③

07 ⑤

08 예시 답안

국어는 영어와 달리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

09 ⑤

10 ②, ⑤ **11** 예시 답안

국어에서는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

12 ②

01 나이에 따라 구사할 수 있는 문장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모습이 반영된 사례라기보다는 사고력의 발달이 언어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02 (나)에 제시된 ‘혼족’, ‘혼밥족’, ‘혼행족’, ‘혼캠족’ 등은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다.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요인 즉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사회·경제적 요인’ 또는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사회·경제적 요인’ 또는 ‘고용 불안 및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조건>에 제시된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3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만 담은 경우	1점

03 인간의 언어는 내용(의미)과 형식(말소리)이 자의적으로 결합한다. 따라서 내용과 형식이 서로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 풀이

- 언어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발전하게 하는 수단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어 내고 축적해 왔으며, 언어를 도구로 하여 문화적 산물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인간의 언어는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 언어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식과 의미가 변하거나 소멸, 생성되기도 하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04 우리말에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영어보다 세분화되어 발달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영어권 국가보다 혈연이나 친족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추론할 수 있다.

05 <보기>는 실험 참가자들이 같은 그림을 보고도 그 그림에 붙은 이름에 따라 그림을 각기 다르게 인식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언어(이름) 표현이 사고(그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사고가 언어 표현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보기>를 통해 이름이라는 언어가 사고(사물을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실험 참가자들은 언어(사물의 이름을 쓴 글자)를 이용하여 사물을 범주화한 것이다.

06 ③은 국어의 문법적 특성일 뿐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 예라

고 보기는 어렵다.

07 <보기>에서는 ‘f’ 음가를 한국어로 표기할 때 파열음 ‘ㅍ’이나 마찰음 ‘ㅎ’으로 표기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마찰음으로만 표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반응이다.

오답 풀이

- ‘th’ 음가를 한국어로 완벽하게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ㅅ’이나 ‘ㄷ’으로 표기가 엇갈리고 있다.
- 영어의 ‘f’나 ‘th’에 해당하는 한국어 음운이 없다는 것을 통해 음운의 종류가 언어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f’를 한국어로 표기할 때 ‘ㅍ’이나 ‘ㅎ’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f’와 음가가 같은 자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Macbeth’를 ‘맥베스’로 표기하기도 하고 ‘맥베드’로 표기하기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08 영어에서는 음절의 첫소리에 ‘spr’나 ‘str’로 둘 이상의 자음이 왔지만, 국어에서는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모음 ‘ㅡ’를 붙여서 ‘스프링’, ‘스트레스’로 표기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국어는 영어와 달리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는 내용을 쓴 경우	4점
국어는 음절의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는 내용을 서술했으나 영어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쓰지 않은 경우	3점

09 서양의 언어에서 온 말도 우리 언어에 자리 잡으면 외래어가 되므로 국어 어휘에 속하게 된다.

오답 풀이

- 국어에는 미묘한 느낌의 차이를 표현하는 색채어가 발달해 있다.
- 국어에는 모음 조화 또는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대립을 활용하여 어감의 차이를 표현하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해 있다.
- 국어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 혈연 관계를 중시해 온 문화의 영향을 받아 국어에는 가족 관계를 세분화하여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해 있다.

10 국어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에는 조사와 어미가 있다. ‘가’는 조사, ‘-는-’은 어미이다.

오답 풀이

- ‘토끼’는 명사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 ‘당근’은 명사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 ‘떡-’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간이다.

11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꾸밈을 받는 말의 뒤로 갈 수 있는 영어와 달리 국어에서는 꾸미는 말이 길어져도 항상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

채점 기준	배점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는 내용을 쓴 경우	4점
꾸미는 말의 순서나 관형절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쓴 경우	2점

12 (가)~(다)에서 한국인들의 언어 능력과 관련된 내용은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나)에 의하면 세종학당의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고, (다)에 의하면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세종학당은 외국에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이므로, (나)의 세종학당 수강생 수의 증가는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다)에 의하면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 ⑤ (가)의 언어별 사용자 수 순위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어는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2) 매체의 유형과 매체 언어

꼭지 시험

» 30~31쪽

01 (1) × (2) ○ **02** (1) 매체 (2) 뉴미디어 **03** (1) ○ (2) × (3) ○ **04** 복합 양식성

탐구 1 매체의 유형과 특성

» 32~34쪽

01 ㉠ 의사소통, ㉡ 전달 **02** ㉠ **03** ㉠ **04** ㉢
05 ㉢ **06** 뉴미디어 **07** ㉤

01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혹은 경로를 매체라고 한다. 매체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정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 등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 준다.

02 지식의 기록과 축적, 보존이 가능해진 것은 문자 언어를 사용하고부터이다.

03 음성 매체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지만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오답 풀이

- ②, ③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리, 음성을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
- ④, ⑤ 유선 전화를 이용하면 특정 대상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04 인쇄 기술의 발달로 책을 대량으로 출판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고, 신문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였다.

오답 풀이

- ①, ②, ④, ⑤ 전화,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은 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매체이다.

05 텔레비전, 영화 등의 영상 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한다. 면 대 면 상황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텔레비전, 영화 등의 영상 매체는 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대량 전송 매체이다.
- ② 영상 매체는 음성 매체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에 문자와 이미지, 영상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제공할 수 있다.
- ④ 텔레비전, 영화 등의 영상 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⑤ 영상 매체는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을 모두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06 인터넷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스마트폰, 온라인 신문,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등)를 뉴미디어라고 한다.

07 뉴미디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사람의 동시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오답 풀이

- ① 뉴미디어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과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를 말한다.
- ②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지식과 정보의 생산·전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 ③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 ④ 뉴미디어는 기존 매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기존 매체들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된 형태로 구현되기도 한다.

01 ④

02 ②

03 ⑤

04 뉴미디어

05 ①

01 신문의 소통 유형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이다.

오답 풀이

- ① 음성 언어를 통한 소통은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면 대면 소통에 해당한다.
- ② 편지의 소통 유형은 문자 언어를 활용한 간접적 소통이다.
- ③ 전화의 소통 유형은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개인들이 전신 또는 전파를 사용해 소통하는 간접적 소통이다.
- ⑤ 라디오의 소통 유형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이다.

02 인터넷 방송은 영상, 이미지, 문자, 소리, 음성 등이 결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문자 언어보다는 영상 언어를 중심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오답 풀이

- 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정보는 생산자와 수용자 간, 수용자와 수용자 간의 동시적 소통이 가능하다.
- ③ 인터넷 방송은 영상을 활용하므로 시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④ 인터넷 방송과 같은 뉴미디어는 수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수신할 수 있으므로 시·공간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 ⑤ 인터넷 방송은 텔레비전 등의 영상 매체와 같이 방송을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03 누리 소통망(SNS)과 같은 뉴미디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므로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누리 소통망(SNS)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다.
- ② 누리 소통망(SNS)은 동영상을 첨부하거나 링크를 거는 방식으로 소통에 활용할 수 있다.
- ③ 한 번 작성하면 해당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므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 ④ 누리 소통망(SNS)은 네트워크에 접속한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04 인터넷 신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이므로 뉴미디어에 해당한다.

05 인터넷 신문 기사는 간접적 소통, 대량 전달 방식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오답 풀이

- ② 인쇄된 신문 기사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고, 기사 생산과 전달에 시간 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인터넷 신문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적은 편이고, 기사를 작성하는 즉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③ 인터넷 신문은 댓글을 통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매체이다.
- ④ 인터넷 신문은 문자, 이미지 외에도 소리와 영상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독자는 인터넷 신문 기사 중 관심이 가는 기사는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다.

탐구 2 현대 사회의 매체 언어

38~39쪽

01 ②

02 쌍방향적

01 매체 언어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만들어지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 양식을 통합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언어 양식과 구분된다.

오답 풀이

- ① 지식을 기록하고 축적하여 보존하는 데에는 문자 언어도 활용할 수 있다.
- ③ 매체 언어는 다양한 언어 양식을 통합하여 매체를 통해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 ④ 말하기를 중심으로 억양, 어조,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것은 음성 언어이다.
- ⑤ 문자 언어가 주를 이루고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결합한 것은 인쇄 매체이다.

02 시청자가 문자 메시지나 채팅,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방송의 쌍방향적 특성 때문이다.

활동 연구

40~43쪽

- 01 ④ 02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로 실시간 변환된다.
03 ② 04 문자, 소리, 움직이는 이미지 등
05 ①, ⑤ 06 ②

01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 통화를 하면 음성과 시각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영상 통화는 음성과 시각 정보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다.
② 영상 통화에서는 문자 언어가 아니라 영상과 음성이 주된 소통 수단이다.
③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통화는 소통을 희망하는 개인들이 시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다.
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통화는 비교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다.

02 인공 지능 문자 통역 서비스는 녹음한 실제 강의의 문자로 바로 통역해서 제공한다고 하였으므로,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로 실시간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3 활동 2의 만화는 기존의 매체(만화)에서 활용하던 양식(이미지, 문자)에 새로운 양식(소리, 음성, 진동)을 결합하여 매체 언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04 〈보기〉의 장면은 문자(대사), 소리(물웅덩이 났는 소리, 빗소리), 움직이는 이미지(비, 뛰어가는 인물)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05 문자와 이미지는 인쇄 매체인 신문 기사에서 주로 활용하는 양식이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영상, 소리, 음성은 인쇄 매체인 신문 기사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양식이다.

06 신문 기사는 주로 문자 언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뉴스 영상은 영상, 이미지, 음성, 문자 등을 결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뉴스 영상에 신문 기사의 문자 언어를 그대로 활용할 필요는 없다.



소단원 평가 문제

45~46쪽

- 01 ⑤ 02 ① 03 ④ 04 ⑤
05 복합 양식성 06 ④ 07 ③
08 **예시 답안** 장점: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 / 단점: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01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음성 매체와 영상 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인쇄 매체는 음성 매체에 비해 정보의 전달 속도가 느리다.
② 음성 매체는 시각적 정보가 제한되므로 영상 매체가 더 다양한 양식을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 매체가 음성 매체에 비해 복합 양식적 성격이 강하다.
③ 문자 해독 능력이 더 요구되는 것은 인쇄 매체이다.
④ 음성 매체는 시각적 정보의 전달이 어려우나, 인쇄 매체는 시각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02 뉴미디어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교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있으며,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03 (가)는 인쇄 매체인 책으로, 책을 통해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필자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시·공간에서만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 풀이

- ③ 책은 문자 언어를 주로 활용하지만, 누리 소통망[SNS]은 문자, 이미지, 영상, 음성, 소리 등 다양한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누리 소통망[SNS]에서는 네트워크에 접속한 많은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04 인터넷 신문을 읽는 독자는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기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인터넷 신문의 독자는 댓글을 통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인터넷 신문은 시각적 정보 외에도 청각적 정보 등을 전달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신문은 전통적인 신문에서 활용하는 문자와 이미지 외에도, 영상, 소리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④ 인터넷 신문에 음성이나 소리가 첨부될 경우 현장감을 부여해 내용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05 매체 언어는 소리,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이 통합적으로 결합하여 활용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복합 양식성이라 한다.

06 인터넷 방송은 쌍방향적 특성으로 인해 실시간 메시지나 채팅으로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인터넷 방송이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 ③ 인터넷 방송은 시각적 효과 외에도 음성, 소리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07 제시된 신문 기사 내용과 청소년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설문 통계는 관련이 없다.

08 음성 매체는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장점과 단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4점
장점과 단점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2점

01 인간의 언어는 내용과 형식이 필연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합한다. 이를 언어의 자의성이라 한다. 또한, 인간은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창조성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 ①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내용과 형식이 일단 사회 속에서 약속으로 굳어지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② 언어의 규칙성: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내 또는 단위 사이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 ⑤ 언어의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식과 의미가 변하거나 소멸, 생성되기도 한다.

02 우리말은 다른 언어에 비해 형제자매 사이를 나타내는 어휘가 성별, 손위·손아래, 부르는 사람의 성별까지 구분하여 세분화된 것으로 보아, 한국 문화는 성별과 상하 관계를 뚜렷이 구분하여 격식을 차리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성별과 상하 관계를 뚜렷이 구분한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4점
성별과 상하 관계 중 하나만을 명시한 경우	2점
형제자매 사이를 세분한다는 내용만 쓴 경우	1점

03 (가)에 제시된 우리말과 영어의 사례들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04 (나)는 이름(언어)이 인간의 사고(기억)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색깔은 시각적 자극이 약하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색깔에 따른 시각적 자극의 정도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나)에서 이름을 아는 기본적인 색깔과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중간 색깔을 비교했을 때, 이름을 아는 기본적인 색깔을 더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름이라는 언어가 인간의 인식과 사고(기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05 영어의 '라이스(rice)'에 해당하는 어휘가 우리말에는 벼, 쌀, 밥, 모 등으로 세분되어 있으므로, 우리말의 어휘와 영어의 어휘가 일 대 일로 대응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오답 풀이

- ① 영어권 나라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비해 관련 어휘가 발달하지 않았다.
- ② 5문단에서 밥은 우리 삶의 원천이자 음식의 출발점이라고 했으므로, 밥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대단원 평가 문제 49~53쪽

- 01** ③ **02** **예시 답안** 성별과 상하 관계를 뚜렷이 구분하여 격식을 차린다. **03** ② **04** ⑤ **05** ④
- 06** **예시 답안**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경작하는 농경 문화와 쌀을 주식으로 먹는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벼를 키우는 과정과 밥을 짓는 과정에 따라 같은 대상을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 분화하여 발달하였다. **07** **예시 답안** 영어에는 파열음에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의 대립이 있는데 한국어의 파열음에는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의 대립이 없고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대립이 있다. 그래서 미국인이 한국어의 파열음을 발음할 때 혼란을 겪는 것이다. **08** ④ **09** ④ **10** ⑤
- 11** ④ **12** ② **13** ② **14** ③
- 15** **예시 답안** (가)는 문자로만 의사소통을 하므로 문자에 드러난 내용만을 가지고 대화를 하지만, (나)는 영상으로 소통을 하여 상대방의 표정까지 알 수 있어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6** ③ **17** **예시 답안** 시청자가 문자 메시지나 채팅 등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 ③ 5문단에서 ‘밥’은 음식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음식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하였다.
- ⑤ 4문단에 의하면 ‘짓다’라는 동사는 ‘만들다’보다 좁은 영역에서 쓰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 쓰인다.

06 우리나라는 쌀을 경작하는 농경 문화와 쌀을 주식으로 먹는 음식 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영어권 나라와는 달리 벼를 키우는 과정과 밥을 짓는 과정에 따라 같은 대상을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 분화하여 발달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쌀을 주식으로 먹는 음식 문화와 쌀을 경작하는 농경 문화로 인해 쌀과 관련된 어휘가 분화하여 발달하였다고 서술한 경우(쌀을 주식으로 먹는 음식 문화와 쌀을 경작하는 농경 문화 중 한 가지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함.)	5점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은 서술했으나 이를 언어와 연결 지어 설명하지 못한 경우	3점
쌀과 관련된 명칭이 다양하게 발달했다는 언어의 특징만 서술한 경우	1점

07 (나)에 의하면 영어에는 파열음에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의 대립이 있는데 한국어의 파열음에는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의 대립이 없고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대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의 미국인이 한국어의 파열음 ‘ㄴ’과 ‘ㄹ’을 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한국어 음운의 특징과 영어 음운의 특징을 쓰고, (가)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6점
한국어 음운의 특징과 영어 음운의 특징 중 하나만 쓰고, (가)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서술한 경우	4점
한국어 음운의 특징과 영어 음운의 특징을 쓰지 않고 (가)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만 쓴 경우	2점

08 우리말에는 영어의 ‘f’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f’를 소리 그대로 표기할 수 없어 ‘ㅎ’이나 ‘ㅍ’으로 쓰는 등의 혼란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외래어 표기법에서 ‘ㅍ’으로 쓰기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f’ 외에 ‘v’, ‘th’ 등도 우리말에 없는 음운으로, 한글로 표기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다.
- ② <보기>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소리가 가장 비슷한 음운을 우리말에서 골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의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f’는 항상 ‘ㅍ’으로 적어야 한다.
- ③ ‘f’와 ‘ㅍ’은 음가가 같지 않다.

- ⑤ <보기>는 원래 언어의 음운과 똑같은 소리를 가진 음운이 없어서 표기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똑같은 소리를 가진 음운을 우리말에서 찾아 써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09 ‘꿈’은 고유어이고, ‘사유(事由)’는 ‘일의 까닭’을 의미하는 한자어이다.

오답 풀이

- ① ‘땅’과 ‘사랑’은 모두 고유어이다.
- ② ‘과거(過去)’와 ‘현재(現在)’는 모두 한자어이다.
- ③ ‘이유(理由)’는 한자어이고, ‘생각’은 고유어이다.
- ⑤ ‘아름답다’는 고유어이나, ‘땅토’는 외래어이다.

10 한국어에서는 같은 감사 표현이라도 듣는 사람이 선생님일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듣는 사람이 꼬마일 때는 ‘고마워.’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는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한국어는 영어에 비해 높임 표현이 더 엄격하므로, 높임 표현면에서는 격식을 더 차리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 ②, ③, ④ <보기>를 통해 영어의 높임 표현에 대해 알아낼 수는 없다.

11 중국어는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언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가), (다)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의 대부분이 중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어는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 ② (나)에 의하면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인 세종학당의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다)에 의하면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는 2009년 이후 잠시 감소한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다.
- ⑤ (나), (다)에 나타난 세종학당 수강생 수와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를 통해 세계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2 한국어 문장에서 어순의 변화가 비교적 자유로운 이유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가 발달하여 문장에서의 위치가 달라져도 문법적 관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 ① 문장 성분과 의미는 어순의 변화와 관련이 없다.
- ③ 한국어에서 단어 하나가 곧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

니다. 단어에 조사가 붙어 문법적 관계를 표현해야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④ 한국어는 기본 어순에서 변형이 이루어져도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⑤ 한국어는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인 조사가 발달하였다.

13 인터넷과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형식의 매체인 뉴미디어는 영상 매체의 의사 소통 방식인 대량 전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뉴미디어는 소리나 음성만을 활용할 수 있는 음성 매체와 달리 소리, 음성, 영상, 문자, 이미지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음성 매체에 비해 복합 양식적 성격이 강하다.
- ③ 음성 매체는 전파나 전신을 이용하여 바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므로 인쇄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인쇄 매체보다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
- ④ 인쇄 매체는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필자와 독자의 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⑤ 텔레비전, 영화 등의 영상 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14 첫 번째 사례는 기존 영화에서 의미를 전달하던 방법 외에 다른 감각적 방법이 더해진 것을 보여 주고, 두 번째 사례는 기존에 웹툰에서 활용하던 방법 외에 다른 방식을 결합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사례들을 통해 매체 언어는 기존에 사용되던 양식에 새로운 양식을 결합하여 의미를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시된 사례들은 매체 언어의 복합적인 성격이 강해진 것을 보여 주는데, 이를 통해 관객은 영화를 실감 나게 즐기고, 독자들은 웹툰에 몰입한다고 하였으므로 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제시된 사례들은 기존 매체에 다른 양식이 더해지면서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의미 전달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제시된 사례들은 각 매체들에서 매체 언어가 양식을 더하며 변화하는 것을 보여 주므로, 매체의 종류마다 고정된 양식이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제시된 사례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언어 양식을 폐기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5 (가)는 문자로만 의사소통을 하므로 문자에 드러난 내용만을 가지고 대화를 하지만, (나)는 영상으로 소통을 하여 문자로는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얼굴 모습과 표정까지 알 수 있어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진다.

채점 기준	배점
(가), (나)에서 사용된 매체 언어의 특징을 쓰고, 매체 언어의 특징에서 이유를 찾아 서술한 경우	5점
(가), (나) 중 하나의 특징만 쓰고, 매체 언어의 특징에서 이유를 찾아 서술한 경우	3점
(가), (나)에서 사용된 매체 언어의 특징을 쓰지 않고, 이유만 서술한 경우	1점

16 신문 기사는 문자를 주된 전달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부수적으로 활용하지만, 뉴스 영상은 문자 외에 이미지, 영상, 소리, 음성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뉴스 영상이 신문 기사에 비해 문자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오답 풀이

- ① 신문 기사를 변환하여 뉴스 영상으로 제작할 때는 시각적으로 정보를 보여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뉴스 영상에서는 통계 자료를 글이나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이미지로 제작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하면 전달 효과가 더 크다.
- ④ 뉴스 영상에서 인터뷰 내용은 실제 인터뷰 영상이나 음성으로 전달하면 전달 효과가 높아진다.
- ⑤ 신문 기사에서는 시각적 정보를 통한 정보 전달만 고려하면 되지만, 뉴스 영상에서는 소리나 음성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청각을 통한 정보 전달도 고려해야 한다.

17 뉴미디어인 인터넷 방송은 텔레비전 방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쌍방향적인 특성이 결합하여 시청자가 문자 메시지나 채팅 등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도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쌍방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쌍방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3점
쌍방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만 쓰고 <조건>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경우	1점

2 국어의 구조

(1) 음운

꼭지 시험

» 60~61쪽

- 01 (1) 말소리 (2) 장애 02 (1) ○ (2) × (3) ○ 03 (1) 뒷일
(2) 말이 (3) 신라 04 (1) ○, ㄴ, ㅁ (2) ㄹ, ㅎ, ㅡ (3) 거센소리
되기

탐구 1 국어의 음운 체계

» 62~66쪽

- 01 ④ 02 ① 03 ⑤ 04 ④ 05 ⑤
06 ③ 07 ㅈ 08 ② 09 ③

01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이다.

02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고, ‘ㄴ, ㄷ, ㄹ, ㅅ’은 모두 잇몸소리이다.

03 ‘ㄱ, ㅋ, ㆁ, ㅇ’은 모두 여린입천장소리로,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오답 풀이

- ① 입술소리인 ‘ㅂ, ㅃ, ㅍ, ㅁ’에 대한 설명이다.
② 목청소리인 ‘ㅎ’에 대한 설명이다.
③ 잇몸소리인 ‘ㄷ, ㄸ, ㅌ, ㅊ, ㅍ, ㄴ, ㄹ’에 대한 설명이다.
⑤ 센입천장소리인 ‘ㅈ, ㅉ, ㅊ’에 대한 설명이다.

04 <보기>는 파찰음의 조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파찰음에는 ‘ㅈ, ㅉ, ㅊ’이 있다.

05 ‘ㄷ’은 잇몸소리이고, ‘ㅎ’은 목청소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둘 다 입술소리이다.
② 둘 다 잇몸소리이다.
③ 둘 다 잇몸소리이다.
④ 둘 다 여린입천장소리이다.

06 <보기>는 중모음이자 평순 모음이며, 후설 모음인 ‘ㅓ’를 설명하고 있다.

07 <보기>에서 ‘ㅓ’는 평순 모음, ‘ㅓ’는 저모음, ‘ㅓ’는 전설 모

음이다.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고, 전설 모음인 모음은 ‘ㅓ’이다.

08 비분절 음운은 단어의 의미 차이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소리와 소리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문자로 표기할 수 없다. 비분절 음운의 예로는 소리의 길이가 대표적이다.

09 눈[目]은 짧은 소리로 읽는 단어이고 눈[雪]은 긴소리로 읽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말:[言], 말[馬]
② 굴:[窟], 굴[石花]
④ 배:(倍), 배[梨]
⑤ 성:인(聖人), 성인(成人)

활동 연구

» 67~69쪽

- 01 ⑤ 02 ⑤ 03 ⑤ 04 ④

01 <보기>에서 한국 사람은 [p]와 [b]를 서로 다르게 발음하지만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자음의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와 모음의 ‘양성 모음-음성 모음’이 바뀌면 단어의 느낌이 달라진다. 그런데 자음과 모음 중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03 <표준 발음법> 제5항에 따라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ㅁ]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에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에 의의]는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를 ‘-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04 ‘물다’를 짧게 발음하면 ‘작은 물체가 큰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을 남기다.’라는 뜻이고, ‘물:다’와 같이 길게 발음하면 ‘상대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라는 뜻이다.

탐구 2 음운의 변동

» 70쪽~74쪽

- 01 (1) ㄱ (2) ㄷ (3) ㅂ 02 ② 03 ④ 04 ⑤
05 ② 06 ⑤ 07 ⑤ 08 ①
09 구과, ㅎ, 거센소리되기

01 음절의 끝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 ㄴ, ㄷ’은 모두 [ㄱ]으로 소리 나고, ‘ㅌ, ㅍ, ㅊ, ㅎ’은 모두 [ㄷ]으로 소리 난다. 그리고 ‘ㅂ, ㅍ’은 모두 [ㅂ]으로 소리 난다.

02 ‘신문’은 [신문]으로 표기 그대로 소리 난다. 간혹 [심문]으로 소리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표준 발음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궁민]으로 소리 난다.
- ③ [음내]로 소리 난다.
- ④ [든는다]로 소리 난다.
- ⑤ [멍는다]로 소리 난다.

03 ㉠ ‘꽃을’이 [꼬출]로 소리 나는 것은 ‘꽃’ 뒤에 형식 형태소 ‘을’이 결합하여 연음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04 <보기>는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할당량’은 한자어로, ‘ㄹ’ 뒤에 오는 ‘ㄷ, ㅌ, ㅊ’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례이다.

오답 풀이

- ① ‘값이[갑씨]’는 ‘값’의 ‘ㅈ’이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ㅂ’으로 바뀐 다음 뒤의 ‘ㅌ’와 만나 ‘ㅌ’이 된소리로 소리 난다.
- ② ‘역도[역또]’는 ‘ㄱ’ 뒤의 ‘ㄷ’이 된소리로 소리 난다.
- ③ ‘입고[입꼬]’는 ‘ㅂ’ 뒤의 ‘ㄱ’이 된소리로 소리 난다.
- ④ ‘웃고름[온꼬름]’은 ‘웃’의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ㄷ’으로 바뀌고 뒤의 ‘ㄱ’이 된소리로 소리 난다.

05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현상의 일종으로 음절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 뒤의 자음이 이어서 소리 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 두 자음 모두 발음된다. 따라서 ‘밝은’은 [발근]으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없다.

06 ⑤ ‘좋아요[조아요]’는 ㅎ이 탈락하여 발음된다.

오답 풀이

- ① ‘노는’은 ‘놀-+-는’에서 ‘ㄹ’이 탈락하였다.
- ② ‘돕니다’는 ‘돌-+-ㅂ니다’에서 ‘ㄹ’이 탈락하였다.
- ③ ‘둥그니’는 ‘둥글-+-니’에서 ‘ㄹ’이 탈락하였다.
- ④ ‘뵙니다’는 ‘뵈-+-ㅂ니다’에서 ‘ㄹ’이 탈락하였다.

07 ‘그리다’는 ‘그려’와 같이 활용 과정에서 ‘ㄹ’이 탈락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쓰다’는 ‘써’와 같이 활용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다.

- ② ‘크다’는 ‘커’와 같이 활용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다.
- ③ ‘잠그다’는 ‘잠가’와 같이 활용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다.
- ④ ‘담그다’는 ‘담가’와 같이 활용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다.

08 ‘맨손’은 합성어이지만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지 않는다. 따라서 [맨손]과 같이 표기 그대로 읽으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② ‘맨입’은 [맨닙]과 같이 ‘ㄴ’ 첨가가 일어난다.
- ③ ‘식용유’는 [시퐁유]와 같이 ‘ㄴ’ 첨가가 일어난다.
- ④ ‘두통약’은 [두통낙]과 같이 ‘ㄴ’ 첨가가 일어난다.
- ⑤ ‘숨이불’은 [숨니불]과 같이 ‘ㄴ’ 첨가가 일어난다.

09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거센소리되기라고 한다. ‘국화[구과]’는 앞 음절의 ‘ㄱ’이 뒤 음절의 ‘ㅎ’을 만나 ‘ㅋ’으로 발음되어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활동 연구

75~78쪽

- | | | | |
|-------------|---|------------------|-------------|
| 01 ③ | 02 제18항 | 03 날다, 탈락 | 04 ⑤ |
| 05 ④ | 06 (1) 갑, 갑씨 (2) 일근, 일꼬 (3) 할따, 할튼 | | |
| 07 ⑤ | 08 ⑤ | | |

01 ③ ‘물놀이[물로리]’는 앞 음절의 ‘ㄹ’과 뒤 음절의 ‘ㄴ’이 만나 뒤 음절의 ‘ㄴ’이 앞 음절과 똑같은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보기>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국수[국쑤]’는 ‘ㄱ’과 ‘ㅌ’이 만나 ‘ㅌ’으로 발음되므로 <보기>의 ‘조건 2’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 ② ‘먹었다[먹었다] → 머견따’로 ‘ㅌ’이 ‘ㄷ’으로 바뀐 것은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 ‘ㄷ’과 ‘ㄷ’이 만나 ‘ㄸ’이 되었으므로 같은 음운으로 변한 것도 아니다.

④ ‘옥수수[옥썩수]’는 ‘ㄱ’과 ‘ㅅ’이 만나 ‘ㅆ’으로 발음되므로 <보기>의 ‘조건 2’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⑤ ‘말머느리[만머느리]’는 ‘ㄷ’과 ‘ㄹ’이 만나 ‘ㄴ’으로 변했으므로 <보기>의 ‘조건 2’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02 ‘속는다[송는다]’는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었으므로 <표준 발음법> 제18항의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ㄴ)’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와 관련이 있다.

03 ‘날다’는 연결 어미 ‘-는’과 결합할 때 ‘ㄴ’이 탈락하여 ‘나는’으로 표기한다.

04 ‘흔하다’는 ‘ㅎ’이 두 번째 음절의 첫소리이므로 탈락하지 않는다. 발음할 때에도 [흔하다]로 발음한다. 간혹 [흐나다]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발음이다.

05 ‘첫사랑’은 [첫싸랑]과 같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맨입[맨닙]’, ② ‘콩엿[콩넛]’, ③ ‘숨이불[숨니불]’, ⑤ ‘한여름[한너름]’에서는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난다.

06 ‘값’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갑]으로 발음된다. ‘값이’는 연음 현상이 일어난 다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갑씨]로 발음된다. ‘읽은’은 연음 현상이 일어나 [일근]으로 발음된다. ‘읽고’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다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일꼬]로 발음된다. ‘활다’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다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할따]로 발음되고, ‘활은’은 연음 현상이 일어나 [할튼]으로 발음된다.

07 ‘디디다’와 같이 한 음절 안에서 ‘ㄷ, ㅌ’과 ‘ㅣ’나 반모음 ‘ㅚ’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디디다’는 표기 그대로 [디디다]로 읽는다.

오답 풀이

① ‘갈이[가치]’, ② ‘굴이[구지]’, ③ ‘말이[마지]’, ④ ‘갈히다[가치다]’에서는 모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08 <보기>의 ‘갈이[가치]의 가치’는 구개음화로 인해 ‘갈이’와 ‘가치’의 발음이 같아지는 현상에 착안하여 만든 광고 문구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80~82쪽

-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②
06 ④ 07 ③ 08 ③ 09 예시 답안 [턱빠
지를 간치 두다]로 발음되고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10 ④ 11 ② 12 ④
13 ④ 14 예시 답안 [가파다]로 발음되고 자음군 단순화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1 분절 음운은 음절 안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음운을 가리키는 말로, 자음과 모음이 있다. 비분절 음운은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으로 소리의 장단 등이 있다.

02 <보기>에서 한국 사람들은 [p]와 [b]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 화자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바보[pabo]’에서 앞 음절의 [p]와 뒤 음절의 [b]를 다르게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03 ‘ㄴ, ㄹ, ㅇ’은 모두 비음으로 공기가 입과 코로 동시에 지나가며 내는 소리이다. ‘ㄴ’은 잇몸소리, ‘ㄹ’은 입술소리, ‘ㅇ’은 여린입천장소리로 조음 위치는 서로 다르다.

04 ‘ㄱ’은 원순 모음, 후설 모음, 고모음으로 단모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을 발음할 때에는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ㅣ’는 평순 모음이므로 ‘ㅣ’를 발음할 때에 입술은 평평한 모양이 된다.
③ ‘ㄱ’은 중모음, ‘ㄷ’은 저모음이다. 저모음일수록 혀의 높이가 낮아져야 하므로 입을 크게 벌린다. 따라서 ‘ㄱ’을 발음할 때보다 ‘ㄷ’을 발음할 때 입이 더 크게 벌어진다.
④ ‘ㅣ’는 전설 모음, 고모음, 평순 모음이고, ‘ㅡ’는 후설 모음, 고모음, 평순 모음이다. 혀의 앞뒤 위치만 서로 다르므로 연속해서 발음할 때에는 다른 조음 기관의 변화 없이 혀만 앞뒤로 움직이게 된다.
⑤ ‘ㅡ’는 고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고, ‘ㅏ’는 저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이다. 따라서 혀의 높이만 서로 다르므로 연속해서 발음할 때에는 다른 조음 기관의 변화 없이 혀의 높낮이(입을 벌리는 정도)만 달라지게 된다.

05 ‘겹이불’은 [겹니불 → 겹니불]로 발음되는데,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즉 ‘겹이불’은 교체와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 ① ‘독립문[동님문]’에서는 교체(비음화)가 일어난다.
③ ‘하얏다[하야타]’에서는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일어난다.

- ④ ‘국밥집[국뽕집]’에서는 교체(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두통약[두통낙]’에서는 첨가(‘ㄴ’ 첨가)가 일어난다.

06 <보기>의 ㄱ은 ‘ㄹ’ 탈락, ㄴ은 비음화, ㄷ은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아는’은 ‘알다’가 활용하면서 ‘ㄹ’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받는다’는 비음화가 일어나 [반는다]로 발음되고, ‘같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 ① ‘동글다’에서는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꽃이’에서는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
 ③ ‘오는’에서는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 ‘감는’에서는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국밥[국뽕]’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7 ㄴ에서 ‘농고’의 ‘ㄱ’은 앞에 오는 ‘ㅎ’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고, ‘집합’의 ‘ㅂ’은 뒤에 오는 ‘ㅎ’의 영향을 받아 ‘ㅍ’으로 바뀐다. 즉,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방향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08 ‘산기슭에’와 같이 자음군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이어질 때에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연음된다. 따라서 [산끼슬게]가 맞는 발음이다.

09 ‘턱받이를 갖춰 두다’는 [턱빠지를 갇춰 두다]로 읽는다. [턱빠지]에서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갇춰]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채점 기준	배점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정확히 쓰고, 세 가지 음운 변동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정확히 썼으나, 일어나는 음운 변동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3점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정확히 썼으나,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10 ‘급행열차[그뽕널차]’에서는 거센소리되기(급행 → [그뽕])와 ‘ㄴ’ 첨가(열차 → 널차)가 일어난다. ‘못하는[모타는]’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입고[입꼬]’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11 ‘꽃말’은 [꼰말](음절의 끝소리 규칙)로 변한 다음 [꼰말](비음화)로 변하는 과정을 거친다.

오답 풀이

- ① ‘국물[궁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③ ‘놓다[노타]’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④ ‘맑다[막따]’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칼날[칼랄]’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12 ‘꽃날’은 [콘날]로 소리 나는데, ‘ㄴ’ 소리가 나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합성어이다. ‘ㄴㄴ’ 소리가 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콘날]의 ‘날’에서 ‘ㄴ’은 본래 있던 음운이므로 첨가된 소리가 아니다.

13 <보기>는 비음화에 대해 규정해 놓은 표준 발음법이다. ‘밭아’는 어근 ‘밭-’ 뒤에 형식 형태소 ‘-아’가 결합한 형태로 연음되어 [밭바]로 읽힌다.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가 아니다.

14 ‘값하다’는 [가파다]로 발음한다. 이때 자음군 단순화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채점 기준	배점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정확히 쓰고, 두 가지 음운 변동을 모두 서술한 경우	5점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정확히 썼으나,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점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정확히 썼으나,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2) 단어

꼭지 시험

84~85쪽

- 01 (1) × (2) ○ (3) × 02 (1) 관형사, 부사 (2) 관계
03 (1) 파 (2) 합 (3) 단 04 (1) 반의 관계 (2) 유의 관계

탐구 1 품사의 분류와 활용

86~88쪽

- 01 ② 02 독립언 03 ① 04 ⑤ 05 ②
06 ④

01 단어를 공통된 성질로 묶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형태의 변화 유무,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기능, 단어가 지닌 의미 등 세 가지가 있다.

02 ‘감탄사’는 문장 속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독립언’으로 분류한다.

03 ‘홀로 쓰일 수 없다’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관계언 - 조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4 <보기>는 모두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와 결합할 수 없다.

05 ‘한’과 ‘저’는 명사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안’은 동사 ‘왔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아주’는 부사 ‘오래’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바로’는 관형사 ‘저’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06 ‘선유야, 내일 여기서 만나자.’에서 ‘선유야’는 체언(대명사) ‘선유’에 호격 조사 ‘야’가 붙어서 만들어졌다.

활동 연구

89~91쪽

- 01 ② 02 ④ 03 ① 04 ㉠: 문장 전체 ㉡: 기빠하면서 05 ④ 06 ㉢: 대명사 ㉣: 부사

01 ㉢ ‘에’는 조사로 홀로 쓰일 수 없는 단어이다. 그러나 ㉣ ‘야’는 감탄사이므로 홀로 쓰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 ‘생겼다’는 동사, ㉡ ‘좋았다’는 형용사로 둘 다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③ ㉢ ‘다섯’은 관형사(수 관형사), ㉣ ‘문득’은 부사로 모두 수식언에 속한다. 수식언은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④ ㉠ ‘봉사’는 명사, ㉢ ‘나’는 대명사, ㉣ ‘둘’은 수사로 체언이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인다.

⑤ ㉠ ‘봉사’는 명사로 실질 형태소이다. 반면 ㉢ ‘에’는 조사로 형식 형태소이다.

02 ‘성실하다’는 활용할 때 종결 어미 ‘-는다/-니다’와 결합할 수 없는 형용사이다.

03 ‘찢다’는 ‘찢고, 찢어, 찢는’과 같이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동사이다. ‘뽑다’ 역시 ‘뽑고, 뽑아, 뽑는’과 같이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동사이다.

오답 풀이

‘있다’는 ‘이어’와 같이 활용하여 ‘ㅅ’ 불규칙에 해당한다. ‘눕다’는 ‘누워’와 같이 활용하여 ‘ㅂ’ 불규칙에 해당한다. ‘노랗다’는 ‘노래’와 같이 활용하여 ‘ㅎ’ 불규칙에 해당한다.

04 ‘다행히’는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부사로 사용되었다. ‘무척’은 바로 뒤의 ‘기빠하면서’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

05 ‘법대로’에서 ‘대로’는 앞의 명사에 붙어 문법적인 뜻을 부여하는 조사로 쓰였다. 같은 형태의 ‘대로’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꾸며 주는 관형어가 앞에 있어야 한다.

06 ㉠은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된 대명사이고, ㉢은 문장에서 부사어로 사용된 부사에 해당한다.

탐구 2 단어의 짜임

92~94쪽

- 01 ④ 02 9개 03 ④ 04 ① 05 ②
06 ⑤

01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형태소로 나누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뜻을 가진 말도 나누어야 한다.

02 ‘바구니에 당근과 파를 담았다.’는 형태소를 기준으로 ‘바구니/에/당근/과/파/를/담/았/다’로 나눌 수 있다.

03 ‘돌아오다’는 어근 ‘돌다’와 어근 ‘오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 ① ‘먹이’는 어근 ‘먹-’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② ‘맨발’은 어근 ‘발’에 접두사 ‘맨-’이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③ ‘복스럽다’는 어근 ‘복’에 접미사 ‘-스럽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⑤ ‘덧붙이다’는 어근 ‘붙이다’에 접두사 ‘덧-’이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04 ‘군것질’은 어근 ‘것’의 앞에 접두사 ‘군-’이 붙고, 뒤에 접미사 ‘-질’이 붙어서 형성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 ② ‘돌레길’은 어근 ‘돌레’에 어근 ‘길’이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 ③ ‘맞들다’는 어근 ‘들다’에 접두사 ‘맞-’이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 ④ ‘병마개’는 어근 ‘병’에 ‘마개’(어근 ‘막-’+접미사 ‘-개’)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⑤ ‘싸움꾼’은 어근 ‘싸우-’에 접미사 ‘-꾼’이 붙은 다음 다시 접미사 ‘-꾼’이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05 ‘먹거리’는 동사의 어간 ‘먹-’과 의존 명사 ‘거리’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우리말의 순서에 따라 ‘먹다’는 명사 앞에서 관형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먹을거리’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반면 ‘먹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06 ‘새말’은 새롭게 생겨난 말로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무분별한 새말은 언어 규범을 파괴할 수 있지만 모든 새말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활동 연구

95~97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③ 05 ①

01 동사, 형용사의 어간은 실질적인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이고, 어미는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있었다’에서 ‘있’은 실질 형태소로, ‘었’과 ‘다’는 형식 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다.

02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보기>와 같이 동사의 어간 ‘먹-’에 접미사 ‘-이’를 결합하면 명사가 된다. ‘툭질’은 명사 ‘툭’에 접미사 ‘-질’이 붙어 명사 ‘툭질’이 되었으므로 <보기>와 같은 구조의 단어로 볼 수 없다.

03 ‘가시방석’은 ‘몹시 불편한 상황이나 처지’를 가리키는 말로 어근 ‘가시’와 ‘방석’의 원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융합 합성어이다.

04 ‘군세다’는 ‘굳다’와 ‘세다’가 결합된 합성어다. 만약 통사적으로 결합되려면 ‘굳고세다’와 같이 결합되어야 한다. 어간 ‘굳-’과 ‘세다’가 직접 결합하였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05 <보기>는 새말의 사례 중 머리글자만을 따서 만든 말이다.

탐구 3 단어의 의미 관계

98~100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⑤ 05 ③

01 ‘글을 고쳤다.’에서 ‘고쳤다’의 유의어는 ‘수정하다’가 된다. 그러나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쳤다.’에서 ‘고쳤다’의 유의어는 ‘수리했다’로 볼 수 있다.

02 <보기>의 ‘청년-할머니’의 관계와 같이 둘 이상의 의미 자질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03 상의어는 하의어에 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인간’의 하의어인 ‘남자’는 ‘인간’보다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04 ‘뜨다’의 중심적 의미는 ‘위로 올라가다’이고, 여기서 파생된 ‘인기를 얻다’라는 의미는 주변적 의미가 된다. 따라서 ‘뜨다’는 다의어라고 할 수 있다.

05 ‘손’은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이라는 중심적 의미를 갖는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는 이 중심적 의미로부터 파생된 의미이다.

01 ③

02 ②

03 음식

04 ①

05 하늘

01 ①, ②, ④, ⑤의 ‘뜨다’는 ‘위쪽으로 솟아오르다’라는 중심적 의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뜻을 갖는 다의어이다. ③의 ‘뜨다’는 ‘감았던 눈을 벌리다.’라는 뜻으로 ①, ②, ④, ⑤의 ‘뜨다’와는 동음이의 관계이다.

오답 풀이

- ①, ④, ⑤ ‘뜨다’의 중심적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다.
 ② ‘작 달라붙지 않아 틈이 생기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로 ①, ④, ⑤의 ‘뜨다’의 주변적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다.

02 ‘안경을 쓰니’에서 ‘쓰다’는 ‘얼굴에 어떤 물건을 걸거나 덮어쓰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이다.

03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은 모두 음식의 일종으로 음식의 하위어라고 할 수 있다.

04 ① ‘꿈’은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이라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는 의미로 ①의 중심적 의미로부터 파생된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05 ‘땅’의 반의어는 ‘하늘’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106~108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⑤

05 ②

06 ③

07 ④

08 ②

09 ③

10 **예시 답안** 비통사적 합성어란 우리말 어순에 맞지 않는 순서로 만들어진 합성어를 말한다. ‘뛰놀다’는 동사 어간에 동사를 바로 연결시켜 형성된 단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11 ④

12 ⑤

13 ⑤

14 ⑤

01 수식언인 관형사와 부사 중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는 주로 용언, 관형사, 부사, 문장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02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로,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명령형이나 청유형과 어울려 쓸 수 없다. ‘조용하다’의 청유형은 ‘조용히 하자’이다.

03 ① ‘너무’는 관형사 ‘현’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② ‘현’은 명사 ‘옷’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③ ‘참’은 부사 ‘많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많이’는 동사 ‘가지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04 ㄹ에서 ‘그녀’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사용되었다.

05 ‘도와’는 ‘돕-’+‘-아’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어간 ‘돕-’의 ‘ㅁ’이 ‘오’로 바뀌고 ‘-아’가 결합하여 ‘도와’가 되므로 어간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르러’는 ‘이르-’에 ‘-어’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어미 ‘-어’가 ‘-러’로 바뀌어 ‘이르러’가 되므로 어미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 ‘누워’: 어간만 바뀌는 경우
 ㉡ ‘흘러’: 어간만 바뀌는 경우
 ③ ㉠ ‘잡아’: 규칙 활용
 ㉡ ‘하얏졌다’: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④ ㉠ ‘지어’: 어간만 바뀌는 경우
 ㉡ ‘우는’: 규칙 활용(ㄹ 탈락)
 ⑤ ㉠ ‘치러야’: 규칙 활용(ㅡ 탈락)
 ㉡ ‘좋아서’: 규칙 활용

06 ㄷ의 ‘만’은 보조사로 주격 조사 ‘이’와 달리 ‘다른 것은 없이’라는 뜻을 더해 준다. ‘다른 것과 함께’라는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는 ‘도’이다.

07 ㄷ의 ‘하나’는 보조사 ‘만’과 결합하여 쓰였다. 따라서 ‘하나’도 체언(수사)임을 알 수 있다.

08 ㉠ ‘앞’은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다. ㉡ ‘에’는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 ‘돈-’은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09 ③ ‘젓먹이’는 어근 ‘먹-’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먹이’를 만들고, 어근 ‘먹이’에 어근 ‘젓’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신선놀음’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진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싸움꾼’은 [어근(싸우-)+접사(-ㅁ)+접사(-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② ‘뜨개질’은 [어근(뜨-)+접사(개)]+접사(-질)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④ ‘군손질’은 접사(군-)+[어근(손)+접사(-질)]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헛걸음’은 접사(헛-)+[어근(걸-)+접사(-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10 ‘뛰놀다’는 동사의 어간 ‘뛰-’에 동사 ‘놀다’를 결합하여 만든 단어이다. 우리말 어순에 맞게 연결되려면 연결 어미를 사용해야 하므로 ‘뛰어놀다’라고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뛰놀다’는 연결 어미 없이 바로 형성된 단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비통사적 합성어의 뜻을 정확히 서술하고, <보기>의 단어가 비통사적 합성어인 이유를 설명한 경우	5점
두 가지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2점

11 ㄹ의 ‘화살’은 ‘활’+‘살’이 결합한 합성어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활’의 ‘ㄹ’이 탈락했다. 하지만 ‘암탉’은 ‘암’과 ‘닭’이 결합한 합성어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닭’이 ‘탉’의 거센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을 겪는다.

12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었니?’에 사용된 ‘팔다’는 주변 의미인 ㉠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3 총각은 [+사람] [+남성] [-중년], 아줌마는 [+사람] [-남성] [+중년]의 의미 자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두 단어 사이에는 둘 이상의 대립적인 의미 자질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두 단어는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14 ㄹ에서 사용된 ‘간’은 ‘죽은’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지나친’과 유의어로 볼 수 없다.

(3) 문장

꼭지 시험

110~112쪽

- 01** (1) 한 (2) 두 **02** (1) 홀 (2) 이 (3) 안 (4) 이 (5) 안 **03**
(1) ○ (2) × (3) ○ **04** 하십시오 **05** (1) × (2) ○ (3) ○
(4) ○ **06** (1) 히, 리, 기 (2) 히, 리, 기, 우, 구, 추

탐구 1

문장의 짜임

113~115쪽

- 01** ② **02** ④ **03** ① **04** ① **05** ③
06 ④

01 홀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는가’이다.

02 ‘나는 시련이 지나가기만을 바란다.’는 ‘나는 무엇을 바란다.’라는 문장이 ‘시련이 지나가다’라는 절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따라서 홀문장이 아니라 겹문장이다.

03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에서 ‘비가 오기’는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절에 해당한다.

04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특별한 표지가 없고, 한 문장에 주어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시력이 좋지 않다.’는 ‘그는’과 ‘시력이’가 모두 주어처럼 보이면서 특별한 절의 표지가 없으므로 서술절을 안은문장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그가 범인임’은 명사절이다.
③ ‘땀이 나도록’은 부사절이다.
④ ‘공부하는 동생’은 관형절이다.
⑤ ‘잘 다녀오라고’는 인용절이다.

05 <보기>는 연결 어미 ‘-거나’로 이어져 선택의 의미 관계를 갖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네가 1등을 하든지 2등을 하겠지.’ 역시 연결 어미 ‘-든지’로 이어져 선택의 의미 관계를 지닌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④는 의도(목적), ②는 원인, ⑤는 양보의 의미 관계에 있는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06 ‘시간이 되었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는 ‘시간이 되었다’와

‘그는 오지 않았다’가 ‘-지만’이라는 대등적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이다.

활동 연구

116~118쪽

01 ①

02 ②

03 겹문장,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

04 ②

05 ③

01 <보기>는 홑문장으로 이루어진 속담이다. ‘내 코가 석자다.’ 역시 홑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③은 안은문장, ④, ⑤는 이어진문장이다.

02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얼굴이 예쁘다.’는 ‘얼굴이 예쁘다’라는 서술절을 포함한 안은문장이다.

03 ‘날이 흐리다’와 ‘풀이 눅는다’를 연결 어미 ‘-고’로 이은 문장이므로, 겹문장이자 나열의 관계를 갖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04 원인-결과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는 ‘-아서/-어서’, ‘-(으)니’, ‘-(으)므로’가 있다. 따라서 ‘날이 흐려서 풀이 눅는다’는 연결 어미 ‘-어서’에 의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나열’의 의미를 갖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③ ‘양보’의 의미를 갖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④ ‘배경’의 의미를 갖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⑤ ‘대조’의 의미를 갖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05 (가)는 홑문장으로, 이처럼 홑문장으로 각각의 사건을 진술할 때에는 각 사건이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사건처럼 보이는 느낌을 준다.

탐구 2

문법 요소의 활용

119~125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⑤

05 ⑤

06 ①

07 ④

08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09 ④

10 ③

11 ⑤

12 ②

01 (나)에서는 대화 상대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하여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저’, ‘제가’와 같이 상대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말은 이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

02 학생은 첫 번째 말에서는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말에서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선생님은 수업을 마치면서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선생님의 첫 번째 말과 학생의 두 번째 말은 모두 ‘하십시오체’로 높임의 등급이 동일하다.
- ③ 학생은 첫 번째 말에서 ‘해요체’를 사용하고, 두 번째 말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선생님은 수업이 끝났냐는 학생의 질문에 ‘해체’를 사용하여 대답하고 있다.

03 문장의 객체는 ‘이 일’로, 사람이 아니므로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04 ⑤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와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는 주체 높임이 사용되었다. 객체 높임이 사용된 부분은 없다.

05 관형사형 ‘-(으)ㄴ’은 과거 시제를 만들 때 사용된다. 미래 시제는 ‘-(으)ㄹ’을 사용한다.

06 <보기>의 ‘먹었다’는 과거를 표현하는 시제이다. ‘이것은 이미 읽은 책이다’에서 ‘읽은’도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사형이다.

오답 풀이

- ② ‘한다’는 현재 시제이다.
- ③ ‘예쁜’은 현재 시제이다.
- ④ ‘참가할’은 미래 시제, ‘준비한다’는 현재 시제이다.
- ⑤ ‘주겠다’는 미래 시제이다.

07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뀌면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또한 능동사에 피동 접미사를 붙이거나 ‘-어지다’, ‘-게 되다’를 붙여 피동문을 만든다.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변해도 대상이 되는 사건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08 <보기>는 피동문이다.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려면 피동문의 부사어를 능동문의 주어로 두고, 피동문의 주어를 능동문의 목적어로 바꾸고, 피동사를 능동사로 바꾼다.

09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주동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행동을 시키는 주체가 드러난다. 이때 새롭게 생기는 주체는 주동문일 때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생략되었던 것은 아니다.

10 통사적 사동문은 ‘-게 하다’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동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11 <보기>는 ‘-지 못하다’를 이용한 긴 부정문이다.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해서 ‘못 참석했다’로 표현해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지 않다’를 사용하면 화자의 의지에 의한 부정으로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12 부정 부사 ‘안’, ‘못’과 ‘-지 않다’, ‘-지 못하다’ 외에 어휘 자체에 부정의 의미를 지닌 말을 사용하여 만든 부정문을 어휘적 부정이라 한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없다’를 사용하여 만든 어휘적 부정문에 해당한다.

활동 연구

126~129쪽

- 01 ④ 02 ⑤ 03 ② 04 ② 05 ⑤
06 ② 07 ㄱ. 말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ㄴ.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 사람들이 다 온 것은 아니다.

01 주체가 바뀔으로써 높임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주체 높임 법이다. (나)에서는 문장의 객체가 바뀌면서 높임 표현이 달라졌다.

02 ㉠은 선어말 어미 ‘-(으)리-’를 통해 미래 시제를 실현한 표현이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은 진행상으로 ㉡과 관련이 없다.

03 ②는 현재 시제, 나머지는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04 ‘쏟았습니다’에 ‘-아지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들면 ‘쏟아졌습니다’가 된다.

오답 풀이

- ① 깨서 → 깨져서
③ 감지할 → 감지될
④ 흔들었습니다 → 흔들렸습니다
⑤ 담았습니다 → 담겼습니다

05 ㄱ은 드러나지 않은 주어가 아이에게 직접 밥을 떠 먹이는 동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ㄴ에는 드러나지 않은 주어가 밥을 먹으라고 지시하고, 실제 밥을 떠 먹는 동작을 하는 주체는 ‘아이’가 될 수 있다.

06 ‘만들어지다’는 ‘만들다’의 피동사로, 적절한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잊혀진 → 잊힌
③ 들려져 → 들려
④ 보여집니다 → 보입니다
⑤ 교육시켜 → 교육해

07 ㄱ. ‘말겨지다’는 ‘말-+-기-+-어지다’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중복으로 사용되었다. 이 문장에서는 ‘말기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ㄴ. ‘사람들이 다 안 왔다.’에서는 부정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것인지, 오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또는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문제

131~133쪽

- 01 ③ 02 ④ 03 ⑤ 04 ① 05 ④
06 ⑤ 07 ⑤ 08 ④ 09 ⑤
10 **예시 답안** 상대 높임법의 비격식체 중 ‘해요체’가 사용되었다. 11 ⑤ 12 ③ 13 ⑤
14 **예시 답안** ㄱ은 화자의 의지로 인한 부정이거나 단순 부정이고, ㄴ은 화자의 능력으로 인한 부정이다. 두 부정문은 각각 ‘지혜는 꽃을 사지 않았다.’와 ‘지혜는 꽃을 사지 못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1 ‘우리는 가까스로 버스에 올라탔다.’는 ‘주어-서술어’가 ‘우리는 - 올라탔다’로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홑문장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벼가 익는다.’와 ‘벼가 고개를 숙인다.’ 두 문장이 결합한 겹문장이다.
② ‘그는 인기척이 없다.’와 ‘그는 나타났다.’ 두 문장이 결합한 겹문장이다.
④ ‘콩을 심다.’, ‘콩이 나다.’, ‘팥을 심다.’, ‘팥이 나다.’의 네 문장이 결합한 겹문장이다.

⑤ ‘그는 음흉한 사람이다.’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두 문장이 결합한 겹문장이다.

02 ‘가을은 풍요롭지만 어쩐지 쓸쓸하다.’는 ‘가을은 풍요롭다’와 ‘가을은 어쩐지 쓸쓸하다.’라는 두 문장이 이어져 있다. 이때 ‘가을은’은 두 문장의 공통 주어이므로 생략하여 한 번만 사용했다.

03 ⑤는 연결 어미 ‘-아서/-어서’로 연결된 문장으로, 앞 문장이 ‘원인’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

04 ㄱ은 홀문장이고 ㄴ은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겹문장이다.

05 ④는 직접 인용절을 포함한 안은문장으로 ‘그는 나에게 “알았다.”라고 대답했다.’와 같이 조사 ‘라고’를 써서 표현해야 한다.

06 ‘걸어치우다’는 ‘홀어진 것을 거두어 치우다.’,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이다.

오답 풀이

- ① ‘재우다’는 ‘자다’의 사동사이다.
- ② ‘피우다’는 ‘피다’의 사동사이다.
- ③ ‘깨우다’는 ‘깨다’의 사동사이다.
- ④ ‘비우다’는 ‘비다’의 사동사이다.

07 ⑤에는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으로 조사 ‘께’와 특수한 어휘 ‘여쭙다’가 사용되었으므로 객체 높임이 사용된 문장이다.

오답 풀이

- ① 상대 높임이 사용된 문장이다.
- ② 주체 높임, 상대 높임이 사용된 문장이다.
- ③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간접 높임이 사용된 문장이다.
- ④ 주체 높임이 사용된 문장이다.

08 <보기>는 부정의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다. ④는 <보기>의 문장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09 ⑤ ‘댁’은 ‘집’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보기 2>에서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집’ 대신 ‘댁’을 사용하였다.

10 <보기>는 ‘기사님’을 대화 상대로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고 비격식체는 높임의 등급에 따라 ‘해요체’와 ‘해체’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해요체’가 사용되었다.

채점 기준	배점
‘상대 높임법’, ‘비격식체’, ‘해요체’를 모두 넣어 높임 표현을 설명한 경우	5점
위의 세 가지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3점
위의 세 가지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만 설명한 경우	1점

11 ㄷ에서 ‘차가운’은 현재 시제를 의미하는 관형사형으로, ‘마신다’와 동일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12 ③ ‘이번 일은 반드시 내가 하겠다.’에 사용된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냄과 동시에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② 추정이나 추측의 의미이다.
- ④, ⑤ 확신이나 가능성의 의미이다.

13 ⑤ ㄹ에서 ‘못 가게’ 만든 주체는 ‘급작스러운 일’이라고 문장에 드러나 있다.

14 ‘안’ 부정문은 화자의 의지에 의한 의지 부정과 단순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순 부정으로 사용된다. ‘못’ 부정문은 화자의 능력으로 인한 능력 부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안’ 부정문은 ‘-지 않다’, ‘못’ 부정문은 ‘-지 못하다’를 사용하여 긴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ㄱ이 의지 부정이거나 단순 부정, ㄴ이 능력 부정임을 밝히고, 두 문장을 긴 부정문으로 적절하게 바꾸어 서술한 경우	5점
위의 네 가지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위의 네 가지 내용 중 어느 두 가지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위의 네 가지 내용 중 어느 세 가지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4) 담화

꼭지 시험

» 135쪽

01 (1) × (2) ○ (3) × (4) ○ 02 발화

탐구 1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 136~137쪽

01 ④ 02 ④ 03 ①

01 담화가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담화를 이루는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 또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02 재호는 은술이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으므로 청자를 은술이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달하려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발화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담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03 화자가 닫혀 있는 창문을 보며 ‘아, 답다.’라고 말한 것은 창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이나 창문을 열어도 되겠냐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발화에 이어서 ‘나도 많이 답다.’라는 대답은 담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에 적절하지 않다.

활동 연구

» 138~139쪽

01 ④ 02 ⑤ 03 ⑤

01 ‘나 웹툰 그리잖아.’라는 대답은 웹툰을 그리기 위해 태블릿 피시를 사려 한다는 설명을 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어?’는 다음의 ‘너 여기 사는구나!’를 통해 의외의 장소에서 친구를 만난 것에 대한 반가움과 놀라움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 ② 전단지를 건네는 행동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것으로, 함께 전단지를 돌리자는 권유의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 ③ ‘태블릿 피시?’는 상대방의 의외의 대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는 질문이다. 이어지는 은호의 말을 통해서도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너는?’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가)는 구어 담화이고 (나)는 문어 담화이다. 구어 담화는 상대방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문어 담화에 비해 상황 맥락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03 ‘전화할 사람은 도서관 밖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청자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간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탐구 2 담화와 맥락

» 140~141쪽

01 ② 02 ④

01 ①은 샌드위치, ②은 김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각각의 화자가 말한 언어적 맥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이 샌드위치라는 것은 현우의 앞선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02 ②은 자신을 위로하는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담은 표현으로 ‘양보’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활동 연구

» 142~144쪽

01 ④ 02 ④ 03 ③ 04 ③
05 저출산 사회(현상)

01 <대화 2>의 ‘개’는 현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02 ‘한국대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문장에서 ‘가다’는 ‘직업이나 학업 등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라는 뜻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라는 뜻을 모두 갖기 때문에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을 통해 중의성을 해소하거나 중의성이 해소된 표현으로 바꾸어 말함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에 가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는 여전히 ‘가다’의 의미가 모호하여 중의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03 (나)는 세대 간의 사회·문화적 맥락 차이로 인해 서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이다. 세대 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세대만 노력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04 이 광고는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이들 가족이 슬프고 불편하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정 관념을 깨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을 유도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져 존중하며 살아가자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보기>에서는 집집마다 아이를 둘 또는 셋을 낳는 것이 국가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전달한다. 이러한 주제의 전제가 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사회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저출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146~147쪽

01 ① **02** ⑤ **03** ③ **04** 예시 답안 ㉠: 머리핀, ㉡: 언니가 알려 준 가게, ㉢: 고은이와 수진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 노란색 머리핀 **05** ② **06** ①

07 예시 답안 (가)와 (나)는 각각 문어 담화, 구어 담화이다. (가)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체계적이고, 문법적인 표현이 사용된다. 반면 (나)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덜 체계적이고,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도 한다.

01 발화는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이 실제 언어 표현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발화라고 볼 수 없다.

02 이 대화에서는 두 인물이 대화를 나누지만 발화가 하나의 중심 내용으로 의미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담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03 ㉢ 엄마의 ‘잘 했다. 잘 했어.’는 언어적 맥락을 고려할 때 물을 엮지른 지수에 대한 핀잔의 의미이므로 언어 표현 그대로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

04 담화에 등장하는 지시 표현은 앞선 발화에서 등장한 대상이나 장소일 수도 있고, 담화 상황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장소일 수도 있다.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지시 표현이 지시하는 바를 찾아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네 가지 지시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5점
네 가지 지시 표현 중 어느 한 가지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3점
네 가지 지시 표현 중 어느 두 가지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2점
네 가지 지시 표현 중 어느 세 가지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	1점

05 <장면 1>에서 아주머니가 원하는 정보의 핵심 내용은 ‘대한 고등학교에 가는 방법’인데 학생은 자신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고 아주머니가 원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담화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아주머니가 학교 인근 도로에서 학생에게 질문한 것은 학교로 가는 길을 알려 달라는 ‘요청’의 의미이다.
- ③, ④ <장면 2>에서 선생님의 발화는 ‘이러지 말아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학생은 이를 잘못 이해하여 맥락에 맞지 않게 질문에 답하는 발화를 하여 담화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 ⑤ <장면 1>과 <장면 2>를 통해서 대화를 할 때에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발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06 ① ‘소금 좀 줄래?’의 ‘좀’(조금)은 양을 조금만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말이다.

07 (가)는 글로 전달되는 ‘문어 담화’이고, (나)는 말로 전달되는 ‘구어 담화’이다. ‘문어 담화’는 글쓰기와 독자가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특징이 있고, ‘구어 담화’는 화자와 청자가 대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특징을 지닌다.

채점 기준	배점
두 담화의 종류를 쓰고, 각각의 특징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5점
위의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를 적절하지 못하게 서술한 경우	3점
위의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두 가지를 적절하지 못하게 서술한 경우	2점
위의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세 가지를 적절하지 못하게 서술한 경우	1점

- 01 ③ 02 ② 03 ③ 04 ⑤
- 05 [예시 답안] ‘ㄱ’과 ‘ㄴ’은 모두 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이다. 그러나 ‘ㄱ’은 중모음인 반면 ‘ㄴ’은 저모음이어서 발음할 때 ‘ㄴ’이 ‘ㄱ’보다 입이 더 크게 벌어져. 06 ① 07 ④
- 08 ② 09 [예시 답안] (가)는 ‘ㄹ’ 탈락, (나)는 ‘-’ 탈락이 일어난다.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공통점은 하나의 음운이 탈락한다는 점이다. 10 ② 11 ② 12 ④
- 13 ③ 14 ④ 15 ③ 16 ② 17 ⑤
- 18 ④ 19 ② 20 [예시 답안] ㄱ과 ㄴ의 주어는 각각 ‘선아는’과 ‘이 집은’이다. 두 문장의 안긴문장은 ‘키가 크다’와 ‘방이 많다’로 문장의 서술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문장은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21 ③ 22 ③ 23 ④
- 24 [예시 답안] 담화는 화자, 청자, 발화, 맥락으로 구성된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달라지는 이유는 상황에 따른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01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 모음을 분류한 것이다.

02 분절 음운의 종류는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르다. 가령 [l]과 [r]을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r]로 인식한다. 비분절 음운도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구분해 주는 요소로 소리의 길이가 주로 쓰이며, 중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가, 영어에서는 강세가 사용된다.

03 ㄱ은 ‘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ㄴ은 ‘고모음’, ㄷ은 ‘평순 모음’, ㄹ은 ‘후설 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고모음이자 평순 모음, 후설 모음에 해당하는 ‘-’가 정답이다.

04 모든 자음은 발음 기관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ㅎ’은 목청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이다.

05 ‘ㄱ’과 ‘ㄴ’은 혀의 앞뒤 위치와 입술의 모양은 같으나 혀의 높낮이가 서로 다르다. 혀의 높낮이가 다르다는 것은 발음할 때 입을 벌리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두 모음의 공통점 두 가지와 차이점 한 가지를 쓰고, 발음할 때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두 모음의 공통점 두 가지와 차이점 한 가지를 썼으나, 발음할 때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두 모음의 공통점 두 가지와 차이점 한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또는 발음할 때의 차이점만 서술한 경우	1점

06 <보기>의 표를 참고하면 ‘ㅈ’에서 ‘ㅊ’으로 변할 때에는 ‘입

술 소리’라는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은 채,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조음 방법만 변환을 알 수 있다.

07 <보기>에 제시된 표준 발음법의 제12항은 ‘ㅎ’과 ‘ㄱ, ㄷ, ㅈ’이 결합하여 각각 [ㅋ, ㅌ,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축약 현상인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08 ‘맞다’를 발음할 때에 우선 ‘맞’의 받침인 ‘ㅈ’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ㄷ’으로 변하여 [만다]가 된다. 그다음 ‘ㄷ’뒤의 ‘ㄷ’은 된소리되기에 의해 ‘ㄸ’으로 발음되어 [만따]로 발음된다.

09 (가)의 ‘살다’와 ‘빌다’는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네’, ‘-는’과 결합할 때 어간의 ‘ㄹ’이 탈락하고 있다. ‘ㄷ다’와 ‘고프다’는 어미 ‘-어서’, ‘-아’와 결합할 때 어간의 ‘-’가 탈락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명칭을 쓰고, 두 음운 변동의 공통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무엇인지는 밝혔으나 공통점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명칭 중 어느 한 가지만 바르게 쓰고 공통점도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10 <보기>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음을 첨가하는 것과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를 발음할 때의 경우만 설명하고 있다. ‘물고기’는 ‘물’과 ‘고기’의 합성어이기 는 하지만 <보기>의 내용만으로는 발음 방법을 확인할 수 없다.

11 ‘동백꽃이’는 ‘동백꽃’에 조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발음할 때에는 연음되어 [동백꼬치]라고 읽어야 한다.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의존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덩어리’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④에서는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의 자립 명사로 쓰였다.

13 ㄷ의 ‘만’은 ‘다른 것은 제외하고 어느 특정한 것으로 한정함.’의 뜻을 갖는 보조사이다. ‘도’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그러한 것임.’의 뜻을 갖는 보조사이다. 두 보조사는 형태뿐만 아니라 뜻도 서로 다르다.

오답 풀이

- ① ‘이’는 ‘동생’ 뒤에 붙어 주격을 만들어 주고, ‘에’는 ‘학교’ 뒤에 붙어 부사격을 만들어 준다.
- ② 서술격 조사 ‘이다’는 조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이고, 이며, 인

데' 등과 같이 활용을 한다.

- ④ '너 거기 가라.'는 '너(는) 거기(에) 가라.'와 같이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다. 이처럼 조사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 ⑤ '가기도 잘도 간다.'에서 '잘도'는 부사 '잘'에 보조사 '도'가 결합하여 쓰였다.

14 ㄹ에서 '내가 말한 이'의 '이'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관형어가 반드시 꾸며 주어야 사용할 수 있는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15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은 의존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를 가리킨다.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인 것으로는 용언의 어간이 있다. <보기 2>의 문장에서는 '있는'과 '돋았다'의 어간인 '있-'과 '돋-'이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16 '덮밥'은 '덮다'의 어간에 명사 '밥'이 붙은 합성어이다. 이는 본래 명사 앞의 어간은 관형사형으로 활용한 다음 결합해야 하는 우리말 규칙에 맞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17 '깨다1'과 '깨다2'는 동음이의어로 서로 소리만 같을 뿐 의미는 전혀 다른 별개의 단어이다. 따라서 '깨다1'의 유의어가 '깨다2' 대신 사용될 수는 없다.

18 '오랜 고생 끝에 결국 세계 신기록을 깼다.'에서 사용된 '깨다'는 '어려운 장벽이나 기록 따위를 넘다.'라는 의미이다. ㉠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약속을 깨다', '계약을 깨다' 등이 있다.

19 ㄱ은 이어진문장으로, 앞의 '납주는 성실하다'가 뒤의 '(납주는) 성공할 것이다'의 이유에 해당한다. 하나의 절이 다른 절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인 것은 안은문장이다.

20 ㄱ과 ㄴ의 주어는 각각 '선아는'과 '이 집은'이다. 안긴문장은 '키가 크다'와 '방이 많다'로 각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므로 안긴문장의 종류는 서술절이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 네 가지를 모두 서술하고, 두 안은문장의 종류를 정확히 밝힌 경우	5점
위의 네 가지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위의 네 가지 내용 중 어느 두 가지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위의 네 가지 내용 중 어느 세 가지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21 ㉠ '되시죠?'의 주체는 '자녀분'으로, '자녀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는 '자녀분'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 ① '보여드릴까요?'는 '해요체'로, 상대인 손님을 높이는 표현 방법이다.
- ② '입히다'는 '입다'에 사동 접사 '-히-'를 붙여 사동사로 만든 표현이다.
- ④ '걸린'은 '걸다'에 피동 접사 '-리-'를 붙여 피동사로 만든 표현이다.
- ⑤ '교환시키다'는 사동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환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2 '수현아 오늘 학교 안 오니?'에서 '안'은 수현이가 학교에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단순 부정'에 해당한다.

23 지수는 속담을 활용하여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외국인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고유의 속담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수와 외국인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답화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 답화의 구성 요소는 '화자, 청자, 발화, 맥락'이다. 질문의 발화를 직접 화법으로 이해할 것인지, 간접 화법으로 이해할 것인지는 '맥락'에 의해 달라진다.

채점 기준	배점
답화의 구성 요소 4가지를 정확히 쓰고, 대답을 가르키는 요소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위의 다섯 가지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4점
위의 다섯 가지 내용 중 어느 두 가지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위의 다섯 가지 내용 중 어느 세 가지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위의 다섯 가지 내용 중 어느 네 가지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3 매체의 탐구와 활용

(1) 매체의 정보 구성과 유통 방식

꼭지 시험

164쪽

01 (1) ○ (2) ○ (3) × 02 (1) 음성, 복합적 (2) 개방적

탐구 1 매체에 따른 정보의 속성

165~167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②

01 현대의 매체 언어는 음성, 문자, 소리, 이미지, 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보를 구성한다.

02 대중매체의 수용자는 대체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위치에 머무른다는 한계가 있다.

03 인터넷은 정보 생산자에게 개방적인 매체로, 정보 생산자가 불분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4 인터넷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한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해킹, 전기적 사고 등으로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유실할 위험이 있다.

오답 풀이

- ① 책은 생산자의 범위가 폐쇄적인 반면 정보의 질은 높은 편이다.
⑤ 디지털 정보가 인쇄 정보에 비해 훨씬 정보의 유통이 편리하다.

05 지상파 방송사는 기존의 정보 생산자이다. 따라서 ②를 통해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1인 방송의 생산자는 개인인 경우가 많다.
⑤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은 기존의 정보 수용자였던 대중들이 생산자로 참여하는 백과사전이다.

활동 연구

168~170쪽

01 ⑤ 02 문자, 이미지, 영상 03 ⑤ 04 ①
05 ③, ⑤ 06 ②

01 (가)는 이야기(설화), (나)는 책이다. 음성 언어로 구성된 (가)는 기억에 의존하는 매체이므로, 문자로 구성된 (나)에 비해 정보 보존이 어렵다.

02 소설은 문자 언어로 구성된 매체이며, 영화는 문자, 음성, 소리, 이미지, 영상 언어로 구성된 매체이다.

03 최근 전자책은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③ 전자책은 디지털 정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단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04 인쇄술이 보급되기 전에는 필경 작업, 즉 손으로 책을 옮겨 쓰는 작업을 통해 책을 만들었다.

오답 풀이

③ 해당 시기에 만든 책이 아직까지도 보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간 정보 보관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05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 구성 언어가 복합 양식적인 특성을 갖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신속하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④ 인터넷은 다 대 다 의사소통도 가능한 매체이다. 따라서 일대일 의사소통 위주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보기>는 블로그 게시물의 신뢰성이 높지 않음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블로그의 정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으나, 이를 믿으면 안된다는 극단적인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④ 블로거의 다른 게시물도 확인함으로써 해당 블로거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다.

탐구 2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

171~172쪽

01 ② 02 의사소통 03 ⑤ 04 ③

01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전의 의사소통 수단이 사라지거나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매체가 공존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02 다양한 매체들이 서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의사소통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의사소통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03 휴대가 간편하고 문자 메시지, 음성 통화와 같은 개인적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는 ‘이동 통신 기기’이다.

오답 풀이

③ 인터넷은 연결망의 개념이므로, 휴대가 간편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04 맞춤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 도서의 개정판을 출간한 것은 매체의 상호 보완 사례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텔레비전 뉴스는 누리 소통망을 통해 속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활동 연구

» 173~175쪽

- 01** ① **02** (가)는 시·공간적 제약이 큰 반면, (나)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03** ②
04 웹드라마/인터넷 방송 등 **05** ② **06** ⑤

01 인쇄 매체 대신에 복합적 양식을 띠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했다.

오답 풀이

- ③ 현대의 의사소통 방향은 쌍방향이다.
 ⑤ 현대에는 비대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02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경우 시·공간적 제약을 덜 받게 된다.

03 인터넷 방송은 생산자에게 개방적인 매체이다. 따라서 생산자의 문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⑤ 1인 방송의 경우 제작자가 직접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04 기존 텔레비전 드라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웹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등장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제를 선택하는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05 인터넷 영상을 만들 때, 정보 출처를 단순화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다양성 측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6 인터넷 매체의 정보 구성 형식은 복합적이다. 이는 정보 구성 언어가 복합적일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 177~178쪽

- 01** ④ **02** ⑤ **03** ① **04** ② **05** ①
06 ③ **07** ③ **08** ③ **09** 예시 답안 ㉠ 텔
 레비전은 저장 기기에 정보를 저장하는 반면, 인터넷은 디지털
 정보 형태로 정보를 저장한다. ㉡ 정보 제공자 범위에 있어서 텔
 레비전은 폐쇄적인 반면 인터넷은 개방적이다.

01 라디오는 음성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안내 방송을 하기에 적합한 매체이다.

오답 풀이

⑤ 인터넷은 기존 정보를 수정하거나 편집하기에 용이한 매체이다.

02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기존 매체가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매체가 공존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03 인터넷 매체는 생산자의 범위가 개방적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정보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04 책은 대중매체에 해당하지 않고 인쇄 매체로 분류된다.

오답 풀이

⑤ ㉠과 ㉡의 결합 예시로는 ‘보이는 라디오’,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방송’ 등이 있다.

05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은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반면, 인터넷은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개방적이다.

06 <보기>의 영민이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려고 한다.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인터넷 방송은 대체로 생방송의 형태로 진행된다.

07 인터넷 매체는 전달 속도가 빨라 기존 매체에 비해 파급력이 크다.

오답 풀이

- ① 다양한 계층에서 생산자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 ② 인터넷은 정보를 수정·재생산하기 용이한 매체이다.
- ④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정보 구성 언어가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08 위키백과는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09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각각 정보 보존 방법, 정보 제공자의 범위에서 차이점이 있는 매체이다. 텔레비전은 전통적인 매체이고, 인터넷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매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조건을 고려하여 두 매체를 비교해 본다.

채점 기준	배점
두 매체를 ㉠과 ㉡의 기준에 맞게 비교하고, 글자 수와 조건까지 만족한 경우	5점
두 매체를 비교했지만 ㉠과 ㉡ 중 하나의 내용만 만족하고, 글자 수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3점
두 매체를 비교했지만 ㉠과 ㉡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경우	1점

(2) 매체의 수용과 생산

꼭지 시험

» 180쪽

01 (1) ○ (2) × **02** (1) 매체 자료 (2) 독자 (3) 주체적

탐구 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 181~183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③ **05** ②

01 ①, ②, ④, ⑤는 인터넷 매체에 포함되나 ③은 기존 매체 중 하나이다.

02 ㉠은 예술적 작품성, 즉 영화의 완성도나 화면 구성, 배우의 연기 등의 관점에서 영화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03 <보기>는 현실 세계 반영의 관점에서 드라마 <미생>을 해석한 것이다.

04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의견이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05 <보기>에서 상업적인 속성을 찾기는 어렵다.

활동 연구

» 184~186쪽

01 ②, ④ **02** 수용, 생산자 **03** ④ **04** 여론
05 ① **06** ②

01 ‘댓글 1’은 ‘현실의 반영’ 관점에서 영화를 감상한 해석이다. 따라서 ‘독자의 수용 태도나 방법’을 중심으로 해석한 ②와 ‘사회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해석한 ④가 정답이다.

02 오늘날 대중들은 매체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생산자의 위치에서 매체 자료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03 1주일 만에 목표를 이뤘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었음을 보여 준다. 인터넷은 방사형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정보의 공유와 전달이 용이하다.

오답 풀이

- ② <보기>는 쌍방향 소통의 예시이다.
- ③ 인터넷의 정보 신뢰성은 다른 매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04 인터넷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순식간에 전파되어 큰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05 유아 관련 프로그램에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06 <보기>는 과식이나 음주 강요 등 프로그램 내의 유해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탐구 2 매체 자료의 생산

187~188쪽

01 ④ 02 ①, ⑤ 03 ⑤

01 뉴스는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인 매체이다.

02 <보기>에서는 ‘청소년’ 중 ‘외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수용자의 나이와 관심사를 고려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 생산 시 다양한 언어를 결합하는 데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활동 연구

189~191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④

01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누리소통망(SNS)에 비공개로 일기를 작성하여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02 영화 에피소드를 설명할 때는 소리보다는 글이나 영상 언어를 중심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03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힌다면,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블로그의 특성을 이해한 후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내용에 따라서 글, 이미지, 영상 혹은 복합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수용자가 누구인지,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따라 게시물의 성격이 달라진다.

04 <보기>는 매체로서 블로그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05 ‘인권을 소재로 한 광고 동영상’은 설득 및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③이 가장 거리가 멀다.

06 스토리보드는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시간 순서에 맞지 않게 작성할 경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소단원 평가 문제

193~194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③ 05 ②
06 ④ 07 ④ 08 ⑤ 09 **예시 답안** 인터

넷상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매체 정보를 생산할 때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01 대중은 기존에는 수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뉴미디어의 등장 이후 수용자뿐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지위도 얻게 되었다.

02 <보기>는 전학을 가게 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예시이다.

03 매체 자료는 매체 간의 통합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도 있다. 예시로는 보이는 라디오, 전자책 등이 있다.

오답 풀이

④ 다양한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할 경우, 상황과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매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하다.

04 <보기>는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력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05 ㉠은 제품 판매를 위한 설득이 목적이며, ㉡은 의사소통, ㉢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다.

06 <보기>에서 ‘새로운 세계 창조’와 관련된 해석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이 영화를 예찬하는 다수의 평론이 발표된 것으로 보아’에서 알 수 있다.
- ② ‘짜임새 있는 ~ 완성도를 높였다.’에서 알 수 있다.
- ③ ‘병자호란 당시 ~ 보여 주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 ⑤ ‘필자 역시 ~ 고민하게 되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7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는 같은 주제를 전달하더라도 수용자가 달라질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게 구성을 달리 하는 것이 좋다.

08 영화는 핫미디어, 텔레비전은 쿨미디어이다. 따라서 영화는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수용자의 참여나 보완의 정도가 낮고, 텔레비전은 수용자의 참여나 보완의 정도가 높다.

오답 풀이

① 전화는 쿨미디어이고 라디오는 핫미디어이므로, 전화에 비해 라디오가 정보량이 많다.

④ 같은 정보의 형태이더라도 핫미디어에 비해 쿨미디어의 수용자가 참여하는 정도가 높다.

09 인터넷 매체는 빠른 전파 속도로 인해, 원하지 않더라도 순식간에 정보가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한 뒤에 신중한 태도로 자료를 게시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주의할 점을 제시된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여 서술한 경우	5점
매체 자료를 생산할 때 주의할 점을 서술했으나, 제시된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	3점
매체의 특징과 주의할 점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1점

(3) 매체 언어의 표현과 활용

꼭지 시험

196~197쪽

01 (1) × (2) ○ **02** (1) 주제 의식 (2) 심미적 (3) 존중, 배려
03 (1) × (2) ○ (3) ○ **04** (1) 대중문화 (2) 상업적 (3) 비판적, 주제적

람구 1 매체 언어의 표현과 가치

198~200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1 다양한 매체 언어의 표현 의미와 효과를 잘 이해하여 활용하면 주제 의식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나, 매체 언어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나의 매체 언어를 활용할 때 더 선명하게 주제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매체 언어의 다양한 결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이전에 없던 새롭고 창의적인 표현들이 등장했다.

02 ‘김 문었어요, 잘생김’은 언어유희적 표현으로, ㉠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

03 매체 언어에서 말하는 심미적 가치는 아름답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어떤 대상을 감각적·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비유와 상징은 매체 언어를 좀 더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 방법 중 하나이다.

⑤ 소설은 문자 언어 중심인 반면, 영화는 영상, 음악, 소리 등 다양한 언어를 결합해 심미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04 해당 장면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학생들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오! 나의 선장님, 나의 선장님.”에서 ‘선장’은 키팅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다. 하지만 이 대사에 주제가 직접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다.

05 영화 <퍼시픽 림>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표현한 영화의 예이다.

활동 연구

201~203쪽

01 ④ **02** 심미적 **03** ③ **04** ⑤ **05** ⑤

06 설화 속 도깨비는 온몸이 털로 덮인 우락부락한 외모이지만 웹툰 속 도깨비는 여고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설화 속 도깨비는 인간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음침하고 그늘진 곳에 살지만 웹툰 속 도깨비는 평범한 인간처럼 살아간다.

01 <보기>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위험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광고 문구이다. ‘이거도 지고’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도박에서 이길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 개인은 도박에서 이길 수 있어도 사회는 병들기 때문에 진다는 의미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02 영화는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03 설화 속 도깨비에 대한 묘사를 보면, 우락부락한 외모에 심술궂고 피가 없고 미련하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면이 적다고 말하기 어렵다.

04 (나)에서 드라마 속 도깨비가 현대적이고 화려한 집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인간을 멀리하며 은둔하고 지내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05 기존의 캐릭터와 완전히 다르게 표현해야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06 <보기>의 도깨비는 여고생의 모습, 평범한 가족과 살고 있는 모습 등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탐구 2 매체 언어와 언어생활

204~205쪽

01 ⑤ 02 ⑤ 03 ③

01 학교에서 친구와 나누는 대화는 매체를 통한 간접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루어지는 면대면 의사소통에 해당한다.

02 누리 소통망[SNS]상에서는 익명의 개인이 작성한 글이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03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은 점점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활동 연구

206~209쪽

01 ③ 02 ② 03 ③ 04 기술의 발달로 매체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05 누리 소통망[SNS]에 본인 외의 인물과 관련된 사적인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관련자와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06 ④
07 ⑤

01 누리 소통망[SNS]에서는 개인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회적 의사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02 해시태그는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03 모바일 메신저는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어디서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다수의 사람과도 채팅 방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다.

04 제시된 프랑스와 인도의 사례는 매체의 기술적 발달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05 누리 소통망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타인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릴 때는 사전에 관련된 이들과 충분한 합의를 해야 한다.

06 캡틴은 영어인 '생큐, 플리즈, 익스큐스 미'를 언급했을 뿐 루마니아어가 우리말에 비해 예절 관련 표현이 많은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07 전자 우편을 받았을 때 회신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상대방이 편지의 목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요점만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탐구 3 대중문화의 특성과 주체적 향유

210~212쪽

01 ③, ④ 02 ① 03 ⑤ 04 ④
05 통속성

01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되며, 웹툰이나 인터넷도 대중문화의 영역에 포함된다.

02 웹툰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는 것으로 보아 삶에 활력을 준다는 점과 가장 관련이 있다.

03 신데렐라류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통속적인 줄거리에 대중들이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④ 지나친 폭력성과 상업성은 대중문화의 질을 낮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04 대중문화는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므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05 신데렐라류의 이야기가 반복 생산되는 것은 대중들이 이러한 통속적 이야기를 즐겨 찾고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활동 연구

213~217쪽

01 ④ 02 파급력 03 ⑤ 04 상업적 05 ③
06 ④ 07 ② 08 수동적 09 ④
10 통념

01 (가)와 (나)는 대중매체의 파급력을 보여 주는 기사문이다. 이 기사에서 통속적 견해를 답습하는 대중매체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② 대중매체를 통해 방송된 이후 책이 10만 부가 팔렸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02 팟캐스트 방송이 인기를 끌게 되어, 방송 내용이 책으로까지 출간되어 많은 부수를 판매했다는 사례에서 대중매체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다.

03 그래프를 통해 제품을 관심 있게 본다는 응답률과 제품의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응답률이 같음을 알 수 있다.

04 대중문화의 파급력으로 인해, 대다수의 대중문화 생산자는 상업성을 추구한다.

05 대중문화는 생산자보다는 수용자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오답 풀이

⑤ 대중은 대중문화를 대체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06 <보기>의 신데렐라 이야기와 애니메이션 <슈렉>에서 여성은 남자의 선택 또는 구출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07 남성이 여성을 구출하는 설정은 고정 관념에 해당한다.

08 영화 <슈렉>에서는 기존의 통념을 뒤엎는 요소들이 다수 등장한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의 키스에 의해 공주의 마법이 풀린다는 설정은 전형적인 동화 속 공주의 수동적 모습과 다르지 않다.

09 대중문화를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오답 풀이

② 뉴스도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⑤ 대중문화에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공존한다.

10 대중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통념을 답습하여 보여 주는 경향이 있다.

01 오늘날 매체 언어는 다양한 언어의 결합, 가령 문자와 영상의 결합을 통해 보다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⑤ 누리 소통망(SNS)은 정보 전달과 개인적 의사소통에 모두 적합한 매체이다.

02 '새우의 자존심을 세우다'와 같은 광고 문구는 언어유희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④ 매체 언어의 심미적 가치는 주제와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03 "안전 사고를 예방합시다."라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널리 알려진 동화를 패러디하여 나타낸 광고가 훨씬 창의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에 제시된 창의적 표현의 내용과 광고를 통해 나타내려는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보기>에 제시된 창의적 표현의 내용과 광고를 통해 나타내려는 내용 중 어느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동화 패러디', '광고 문구와 그림'과 같이 단답형으로 쓴 경우	1점

04 <보기>는 누리 소통망(SNS)을 통한 개인적 의사소통이 사회적인 소통으로 확대되어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오답 풀이

⑤ '아이스 버킷 챌린지' 역시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전파된 사회적 운동이다.

05 지훈이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고는 일방적으로 할 말만 하고 대화방을 나갔다. 이는 친구를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은 태도이다.

06 캡틴은 '나'가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 전자 우편을 보내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07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말한다. 많은 사람과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뉴미디어의 특징이다.

08 <보기>는 간접 광고[PPL]에 대한 내용이다. 시청자는 무방비 상태로 간접 광고를 접할 수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청자가 대중문화의 생산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간접 광고와 관련하며 대중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단원 평가 문제 219~221쪽

- 01** ① **02** ③ **03** 예시 답안 널리 알려진 동화 <피노키오>의 주인공을 패러디하여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4** ② **05** ②
- 06** ⑤ **07** ⑤ **08** ③ **09** ⑤ **10** ⑤
- 11** ④ **12** 비판적, 주체적 **13** ⑤
- 14** 예시 답안 대중문화는 삶에 활력을 주고,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

09 전자 우편을 쓸 때도 일반 편지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형식과 받는 사람에게 맞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10 (가)와 (나)는 텔레비전 인문학 방송 열풍이 예능 프로그램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출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통념을 답습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

11 대중이 대중매체의 생산자로 참여할 때 항상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대중문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대중문화에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대중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의식하면서 주체적으로 향유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13 신데렐라류의 이야기는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대리 만족감을 유발한다.

14 대중문화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파급력이 뛰어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대중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보기>의 내용과 연관 지어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대중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보기>의 내용과 연관 지어 서술했으나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대중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단답형으로만 쓴 경우	1점

대단원 평가 문제 225~229쪽

- 01** ② **02** **[예시 답안]**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정보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03** ① **04** ④ **05** ② **06** ③
- 07** ④ **08** ⑤ **09** **[예시 답안]** 영화는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소설과 달리, 인물의 대사와 행동, 음악, 카메라의 움직임과 구도, 화면 편집 등을 통해 심미적 가치를 표현한다. **10** ② **11** **[예시 답안]**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는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 전자 우편이나 온라인 대화,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와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달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2** ③
- 13** ④ **14** ① **15** ② **16** **[예시 답안]** 대중매체는 상업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등장시키고, 이는 대중문화가 지니는 문화로서의 가치나 예술적 수준을 하락시킨다.

01 오늘날에는 책,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뿐 아니라 인터넷과 이동 통신 기기 등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오답 풀이

- ③ 기존 의사소통 수단과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 ④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의 특징이다.
- ⑤ 책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이들이 주로 생산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범위가 폐쇄적이다.

02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사이버 테러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본문 내용을 인용하여 ㉠의 원인을 제시된 글자 수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의 원인을 서술했으나 본문 내용을 인용하지 않거나 제시된 글자 수를 맞추지 못한 경우	3점

03 라디오에서 사연을 소개하는 것은 매체의 상호 보완적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③ 텔레비전이 인터넷과 결합하여 실시간 정보를 접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상호 보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04 복합 양식의 언어를 통한 메시지 생산 능력이 필요한 시기는 현대이다. ㉡은 과거의 시기를 가리킨다.

05 과거에는 주로 매체 자료의 생산자인 작가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독자 중심의 평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06 ③은 드라마 <미생>의 흥행이 직장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다른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관점의 내용이므로, 사회적 영향력 중심의 평가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은 현실 세계 반영 관점, ②, ⑤는 예술적 작품성 관점, ④는 작가 의식 중심 관점이다.

07 (다)에 제시된 광고 문구인 ‘새우의 자존심을 세우다’, ‘청춘하세요’는 모두 창의적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심미적 가치를 부여한 예이다. 심미적 표현을 활용하면 재미를 주기도 하고 기발함과 새로움을 느끼게 하여 광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08 과거에는 클로즈업이 텔레비전의 미학이라 여겨졌으나 디

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웨이트 숏 중심으로 시각적 스타일이 변화하였다.

오답 풀이

- ② 웨이트 숏 방식은 일상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상대방이 눈에 들어오는 것과 유사한 구도를 표현한다.
- ④ 웹드라마는 시청하는 단말기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클로즈업 위주의 촬영을 진행한다.

09 소설은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영화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 화면 편집 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채점 기준	배점
소설이 심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과 비교하고, 영화만이 사용하는 매체 언어를 밝혀 알맞게 서술한 경우	5점
영화가 활용하는 매체 언어를 밝혔으나 소설이 심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10 누리 소통망을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인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사회적 의사소통을 자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11 ㉠의 매체들은 동일한 대량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매체이다.

채점 기준	배점
㉠의 매체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성격이 강한 이유를 개인적 의사소통의 특성이 강한 매체와 비교하여 제시된 형식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의 매체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성격이 강한 이유를 개인적 의사소통의 특성이 강한 매체와 비교하여 서술하였으나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의 매체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성격이 강한 이유만 간략하게 적은 경우	2점

12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체 언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간에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한다.

오답 풀이

- ② 〈보기〉는 개인적 의사소통의 사례이다.

13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유발은 대중문화가 빠른 전달 속도와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⑤ 대중문화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빠른 전달 속도에 있다.

14 대중문화는 생산자의 이윤을 추구하므로 상업성을 탈피하기 힘들며, 이 글에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힘들다.

15 여성이 주체적으로 남성을 선택하는 설정은 기존의 통속적인 견해를 뒤엎는 예이다.

오답 풀이

- ⑤ 동화 속 왕자님들보다 외모와 능력이 부족한 ‘슈렉’이 공주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 기존의 통념을 비꼬고 있다.

16 대중매체는 상업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자주 등장시킨다.

채점 기준	배점
상업성과 관련해 서술했으며, 질적으로 낮은 대중문화의 양상을 구체적 예시를 통해 서술한 경우	5점
상업성과 관련해 서술했지만, 질적으로 낮은 대중문화의 예를 명확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대중문화의 질적으로 낮은 부분을 설명했지만 상업성과 구체적 예를 명확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4 국어 자료의 탐구

(1) 국어의 여러 가지 모습

꼭지 시험

» 236~238쪽

- 01 (1) 음, 뜻 (2) 방점 (3) 된소리 02 (1) ○ (2) × (3) ○
 03 (1) 지역 방언, 사회 방언 (2) 누이 04 (1) ○ (2) ×
 05 (1) ○ (2) ○ (3) ×

탐구 1 시대적 특성에 따른 국어 자료

» 239~243쪽

- 01 ④ 02 ② 03 ④ 04 ③ 05 ②
 06 ② 07 ③ 08 ③

01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어를 중심으로 우리말이 통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02 향찰은 이두, 구결과 달리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을 수 있었던 표기 방식이다.

03 <보기>는 고유 명사를 한자로 표기한 방법의 예로, 차자 표기법의 초기 형태이다. 이두는 이후에 등장한 표기법이다.

04 ‘ㅎ’(여린히읇)은 중세 국어 시기에 존재했던 자음이지만 15세기 이후에 사라졌다.

오답 풀이

- ① ‘ㄷ’(반치음)은 16세기부터 표기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② ‘ㄴ’(순경음 ㄴ)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소멸되었다.
 ④ 현대 국어와 달리 음절 첫머리에 ‘ㅁ’, ‘ㄴ’ 등의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⑤ 모음 ‘ㅛ’(아래아)가 있어서 현대 국어보다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다.

05 주격 조사 ‘가’는 근대 국어 시기에 등장하였다.

06 ‘깊은’의 이어 적기 표기는 ‘기픈’, 끊어 적기 표기는 ‘깊은’, 거듭 적기 표기는 ‘깊픈’이다.

07 중세 국어에서 객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습-/-줍-/-습-’에 의해 실현되었다.

08 ‘ㅛ’(아래아)의 소멸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 16세기에, 두 번째 변화는 18세기 무렵에 일어난다. 그

러나 표기로서의 ‘ㅛ’는 독립신문 창간사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 유지되었다.

오답 풀이

- ① 중세 국어와 달리 받침으로 ‘ㄱ, ㄴ, ㄷ, ㅁ, ㅂ, ㅅ, ㅇ’의 7개 자음만을 적었다.
 ② 이어 적기 표기에서 끊어 적기 표기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표기로 거듭 적기 표기가 나타났다.
 ④ 한문을 섞어 쓰는 국한문 혼용 방식과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식이 함께 쓰였다.
 ⑤ 근대 국어에서는 중세의 이어 적기 표기가 현대의 끊어 적기 표기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활동 연구

» 244~247쪽

- 01 ④ 02 ② 03 ② 04 ③ 05 ④
 06 ⑤ 07 ⑤ 08 ②

01 한자의 뜻을 활용한 부분은 ‘夜, 入, 遊, 行, 如’이고 음을 활용한 부분은 ‘伊, 可’이다.

02 향찰 표기는 한자를 빌려 쓰는 차자 표기 방식의 하나이고 훈민정음은 새롭게 만들어진 문자이다. 훈민정음은 상형, 가획 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향찰이 훈민정음의 창제에 영감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퍼디>퍼지’에서 ‘ㄷ’이 ‘ㄴ’ 앞에서 ‘ㄷ’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③ 어두 자음군이 사라졌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④ ‘ㄴ’(순경음 ㄴ)이 사라졌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⑤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04 ③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로 ‘배’는 ‘바 + ㅣ (주격 조사)’로 분석할 수 있다. 즉, 현대 국어에서 주격 조사 ‘가’가 쓰일 자리에 주격 조사 ‘ㅣ’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

05 ‘ㅛ(아래아)ㅛ(아래아)’의 소멸이라는 변화를 보여 줄 뿐 의미상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06 ‘아:당ㅎ:기’는 ‘아침하기’라는 의미로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07 ‘보기가’의 ‘ㅂ’, ‘ㄴ’은 양성 모음이고 ‘ㅣ’는 중성 모음으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양쪽에 어울릴 수 있는 모음이다. 그러므로 ‘보기가’는 모음 조화가 파괴된 예로 보기 힘들다.

08 ‘비호기가’는 ‘비호-+-기+가’로 분석할 수 있는데 ‘비호’에서 ‘.’ 표기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고, ‘기’에서 명사형 어미 ‘-기’의 사용, ‘가’에서 주격 조사 ‘가’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알어보기가’에서는 명사형 어미 ‘-기’와 주격 조사 ‘가’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쓰는거슨’에서는 ‘.’ 표기의 사용과 이어 적기 표기를 확인할 수 있고, 띄어쓰기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빅스을’에서는 ‘.’ 표기의 사용, 목적격 조사 사용의 혼란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흙이라’에서는 ‘.’ 표기와 명사형 어미 ‘-ㅁ’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탐구 2 사회적 특성에 따른 국어 자료

248~250쪽

- 01 ⑤ 02 ① 03 ④ 04 ⑤ 05 ⑤
- 06 ①

01 방언은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를 이르는 말로 단어의 형태가 다르다고 외국어로부터 기원했다고 할 수 없다.

02 ‘누부’는 ‘누이’의 옛말인 ‘누부’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게 해주므로 국어 자료로서 가치를 갖는 어휘이다.

03 청소년 세대에서는 주체 높임법을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부먹, 찍먹(부어 먹기, 찍어 먹기), ‘잼(재미)’ 등 줄임말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 ② ‘인싸(인사이드,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 ‘갓-(훌륭한, 최고의) 등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 등 인터넷 용어를 잘 사용한다.
- ③ 하계체를 옛날 말투로 인식하며 어색해한다.
- ⑤ 새로운 문화가 반영된 말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04 <보기>에서는 듣는 사람 또는 문장의 주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에 따라 같은 대상(밥)을 다른 어휘(수라, 진지, 입시)로 표현하고 있다.

05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영어 격언에서 비롯된 속담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짚신’을 통해 농경 생활 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 ② ‘김치국’은 우리의 식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 ③ ‘포도청’은 조선 시대 관아를 일컫는 말이다.
- ④ ‘소’, ‘외양간’은 소를 농경의 수단으로 집에서 키우던 우리의 생활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06 언어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사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활동 연구

251~254쪽

- 01 ④ 02 ④ 03 ① 04 ⑤ 05 ⑤
- 06 ③

01 지역 방언은 같은 지역의 사람들끼리 친밀감을 강화시킬 수 있으나 다른 지역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02 ‘기후’는 자연적 요인으로 사회적 특성이라고 볼 수 없다.

03 해요체는 구어적이고 비격식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문체로 세대와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투이다. 이는 세대 간 의사소통의 방해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 ②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의미를 추론하기 쉽지 않아 세대 간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 ③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은어는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비속어의 사용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 ④ 지나친 줄임말은 본래의 뜻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 ⑤ 청소년 세대와 어른 세대가 서로가 즐겨 쓰는 표현에 대해 못마땅해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태도는 세대 간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04 ‘국’은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반영하는 단어로, ‘rice and soup’이라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 의미가 온전히 표현되기는 어렵다.

05 '반찬'이라는 어휘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06 우리말은 상대방을 가리킬 때 친족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호칭어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탐구 3 목적과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

255~258쪽

- | | | | | |
|------|------|------|------|------|
| 01 ⑤ | 02 ② | 03 ④ | 04 ③ | 05 ④ |
| 06 ⑤ | 07 ⑤ | 08 ③ | | |

01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글로 아버지에 대한 염려의 마음과 친밀함의 정서가 담겨 있다.

02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는 정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 간단하고 명료한 표현 등을 많이 사용한다.

오답 풀이

- ① 청유형의 표현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많이 사용되며, 광고문에 주로 등장한다.
- ③, ⑤ 정서를 잘 드러내는 표현은 다른 사람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생산하는 국어 자료, 즉 친교와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 많이 등장하며 편지글, 감상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④ 문어체와 구어체는 목적에 따른 글의 특성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03 공익 광고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국어 자료이다. 이 광고문에는 감상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04 편지글은 편지글을 읽을 상대방에게 맞는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 일정한 형식에 따라 써야 한다.

05 기사문의 예상 독자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이다. 특정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글은 공고문이다.

06 공고문은 공적인 성격을 띤 글이므로 격식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07 상업 광고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공익 광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8 보고문은 연구, 답사, 검토 등 특정한 일의 현황이나 연구, 검토 결과 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국어 자료로, 특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오답 풀이

- ① 공고문은 특정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글이다.
- ② 광고문은 사람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 특정한 반응이나 행동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글이다.
- ④ 보도문은 실제로 발생한 일이나 사건 가운데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글로 기사문과 달리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말(구어)로 전달한다.
- ⑤ 연설문은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한 글이다.

활동 연구

259~261쪽

- | | | | | |
|------|------|------|------|------|
| 01 ② | 02 ③ | 03 ① | 04 ④ | 05 ⑤ |
| 06 ① | | | | |

01 학사 일정은 기사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기사문에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편지글은 특정한 대상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낼 목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다.

03 <보기>는 특정한 행사에 초청하는 글로 예상 독자에게 행사에 오도록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나타난다.

04 동아리 회비 입금 계좌는 동아리원이 되고 난 후에 신입 동아리원을 대상으로 알려야 할 사항으로, 신입 회원 모집 공고문에 들어갈 사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일반적으로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이라는 형식으로 모집 기간을 명시한다.
- ② 몇 명을 모집하는지 알려 주어야 한다. '〇〇명'과 같은 형식으로 인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알려 줄 수도 있다.
- ③ 어떠한 성격을 띤 동아리인지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자기소개서 제출, 면접 등 회원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줄 필요가 있다.

05 합창단이므로 음악 중에서도 노래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고, 개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조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 ① 여러 명이 어울려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 합창의 특성상 개인을 강조하는 문구는 어울리지 않는다.
- ② 손놀림이 강조되는 것은 피아노와 같은 악기 연주에 어울리는 광고 문구이다.
- ③ 개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악기 연주를 하는 합주회가 아니라 노래를 하는 합창단이므로 악기를 강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06 공고문은 정보 전달과 설득의 기능이 같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기사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므로 일반적으로 설득의 기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소단원 평가 문제

263~265쪽

- 01 ④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③ 07 ① 08 **예시 답안** '빅스을'을 통해 목적격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알어보기가'를 통해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9 ③
 10 ⑤ 11 ⑤ 12 ④ 13 **예시 답안** 나라고등학교 재능 발표회의 개최 시기, 개최 장소, 참가 현황 등의 정보를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국어 자료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 '他密(타밀)'의 '他(남 타)', '密(그윽할 밀)'은 모두 한자의 뜻을 빌려 쓴 것이다.

	善	化	公	主	主	隱
뜻	착할	될	귀인	임	임	숨을
음	선	화	공	주	주	은

	他	密	只	嫁	良	置	古
뜻	남	그윽할	다만	시집갈(엮)	좋은	둘	옛
음	타	밀	지	가	량	치	고

02 ㉠은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 법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현대 국어의 '말씀'은 겸양이나 존대의 표현인데 반해 '말씀'은 '말'이라는 의미이다.
- ② 현대 국어의 종성에 쓰이는 'ㅇ'은 소릿값이 있지만 중세 국어에서의 종성 'ㅇ'은 소릿값이 없이 초성, 중성, 종성의 형식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소릿값이 있는 종성의 이용은 'ㅇ(옛이응)'을 썼다.

- ③ '스몹·디'는 '통하지'라는 의미인데 현대 국어에 그 모습이 남아 있지 않다.
- ⑤ 현대 국어라면 '할 바가 있어도'로 쓰여 주격 조사 '가'를 활용했겠지만 이 시기의 국어는 '홍·배이·셔·도'에서 알 수 있듯이 주격 조사로 'ㅣ'를 활용하였다.

03 '물밧출'은 받침도 'ㅅ'으로 표시되어 있고 '출'로도 표기되어 있으므로 거듭 적기 표기의 예로 볼 수 있다.

04 '받즈온'과 '변ㅎ면'에서 알 수 있듯이 받침으로 'ㄷ'을 사용하였다.

05 '우리신문', '아니쓰고', '쓰는거슨'을 통해 띄어쓰기가 오늘날의 현대 국어와 다를 수 있다(ㄱ). '쓰는거슨'에서 '·'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ㄷ). '쓰는거슨'에서 이어 적기 표기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끊어 적기 표기를 하고 있다(ㄷ).

06 '뭇썩'는 '뭇-'(어간)+'-크썩'(어미)로 구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불휘'가 현대 국어로 오면서 '뿌리'로 그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기픈', '브룩매'는 현대 국어에서는 '깊은', '바람에'로 끊어 적기 표기를 하고 있다.
- ④ '도코'는 현대 국어로 바꾼다면 '종고'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ㄷ'에서 'ㅈ'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 ⑤ 중세 국어 시기의 '하다'는 오늘날의 ' 많다'의 뜻으로 쓰였다. 오늘날의 '하다'의 뜻으로 쓰였던 단어는 'ㅎ다'이다.

07 '뿌매'는 '뿌-+-음+에'로 분석할 수 있으며, 명사형 어미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븨기'는 '븨-+-기'로 분석할 수 있으며 명사형 어미 '-기'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08 '빅스을'은 일반적인 목적격 조사의 사용이라면 '빅스를'로 표기되어야 하므로 목적격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어보기가'에서는 중세 국어와 달리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사용 양상을 <보기> 단어의 예를 들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사용 양상을 서술하였으나, <보기> 단어의 예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	3점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사용 양상 중 일부만을 서술한 경우	1점

09 공고문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르고 정확

하게 표현하여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국어 자료이다. 학생 회장 선거 공고문에 회장 선거의 의의와 가치는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10 기내 방송은 공식적인 담화로, 일반적으로는 표준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보기〉와 같이 기내 방송에서 비행기가 도착할 지역의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승객들에게 재미와 친근함을 주고 해당 목적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어 내용 전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11 ‘새벽달’, ‘초저녁’은 설화나 문학 작품이 아닌 기상 현상을 소재로 한 속담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홍부전》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속담으로, 놀부와 같이 마음이 곱지 못하고 욕심이 많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춘향전》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속담이다. 이 도령이 남의 눈을 피해서 골목길로 춘향이네를 찾아가는 길과 같다는 뜻으로, 길이 꼬불꼬불하고 매우 복잡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심청전》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속담으로, 빛을 잔뜩 걸머지고 헤어지지 못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홍길동전》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속담으로, 무엇을 아무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짹 짹 씹어가거나 음식을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먹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2 진혁이와 민정의 대화에서 세대 간 언어의 차이가 어느 세대에서나 존재해 왔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3 제시된 자료에는 친교와 정서의 표현, 설득의 목적이 모두 담겨 있지만 ㉔의 내용을 보면 ‘나래고등학교의 재능 발표회’에 대해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국어 자료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라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㉔를 근거로 하여 국어 자료의 목적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국어 자료의 목적을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나 ㉔의 내용을 근거로 들지 않은 경우	3점
국어 자료의 목적만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	1점

(2) 국어의 규범

꼭지 시험

267~268쪽

- 01** (1) 표준어, 소리, 어법 (2) 전통성, 합리성 **02** (1) ○ (2) × (3) ○ **03** (1) × (2) ○ **04** (1) Silla (2) Jongno (3) Paldang

탐구 1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269~270쪽

- 01** ① **02** ⑤ **03** ⑤ **04** ②

01 ‘낱아’, ‘좋아’를 소리대로 적으면 ‘나아’, ‘조아’가 된다. 그러므로 ‘낱아’, ‘좋아’라고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 적은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② ‘낱을’, ‘낱도’를 소리대로 적으면 ‘나출’, ‘낱또’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낱’이라는 형태소의 기본형을 알 수 없게 되므로 ‘낱을’, ‘낱도’라고 적은 것이다.
- ③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한글의 표음 문자적인 특성에 충실하다는 의미이다.
- ④ 형태소의 본 모양을 적어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⑤ 한글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다.

02 ‘다른 사람의 요구, 성의, 말 따위를 들어주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기본형이 ‘받아들이다’이다. 따라서 ‘받아들이로’ 써야 한다.

03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은 것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중심지이기 때문이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은 아니다.

04 ‘석류’는 [성류]가 표준 발음이다.

활동 연구

271~274쪽

- 01** ② **02** ④ **03** ⑤ **04** ① **05** ⑤
06 ④ **07** ⑤ **08** ⑤

01 ‘식빵’은 본래 된소리로 소리 나는 단어인 ‘빵’ 앞에 ‘식(食)’이 결합한 단어로, 〈보기〉의 규정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02 ‘오탁이’는 ‘오탁-(어근)+-이(접미사)’로 이루어진 단어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예이다.

03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라는 의미의 ‘메밀국수’는 현실에서 ‘모밀국수’라는 표현으로도 쓰이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뉘밥’이 맞는 표현이다.
- ② ‘곰장어’가 맞는 표현이다.
- ③ ‘육개장’이 맞는 표현이다.
- ④ ‘김치찌개’가 맞는 표현이다.

04 ‘하’ 앞에 올림소리 받침(ㄴ, ㄷ, ㄹ, ㅁ, ㅇ)이나 모음이 오면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된다. 그러나 ‘하’ 앞에 안올림소리 받침이 오면 ‘하’가 아주 줄어 든다. ‘생각하건대’의 ‘하’ 앞에는 안올림소리인 ‘ㄱ’이 오므로 줄 입말은 ‘생각건대’이다.

오답 풀이

- ② ‘연구하도록’에서 ‘하’ 앞에 모음이 왔으므로 ‘하’의 ‘ㅏ’가 줄고 ‘ㅎ’이 ‘ㄷ’과 어울려 거센소리 ‘ㅌ’으로 된 것이다.
- ③ ‘원하건대’에서 ‘하’ 앞에 올림소리 받침 ‘ㄴ’이 왔으므로 ‘하’의 ‘ㅏ’가 줄고 ‘ㅎ’이 ‘ㄱ’과 어울려 거센소리 ‘ㄱ’으로 된 것이다.
- ④ ‘간편하게’에서 ‘하’ 앞에 올림소리 받침 ‘ㄴ’이 왔으므로 ‘하’의 ‘ㅏ’가 줄고 ‘ㅎ’이 ‘ㄱ’과 어울려 거센소리 ‘ㄱ’으로 된 것이다.
- ⑤ ‘편하지’에서 ‘하’ 앞에 올림소리 받침 ‘ㄴ’이 왔으므로 ‘하’의 ‘ㅏ’가 줄고 ‘ㅎ’이 ‘ㄷ’과 어울려 거센소리 ‘ㄷ’으로 된 것이다.

05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화자가 가을 단풍을 보며 느끼는 설렘과 감격스러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06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역 방언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07 ⑤는 다른 진술들과 달리 국어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담긴 진술이다.

08 국어 규범의 목적은 국어 규범을 지킴으로써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다.

01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은 고유어이다.

02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적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래어를 통일된 하나의 어형으로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03 <보기>의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에 따라 ‘라켄’이 아니라 ‘라켓’으로 적는다.

오답 풀이

- ①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에 따라 ‘숍’으로 적어야 한다.
- ②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과 표기 세칙 제1항 3의 규정에 따라 ‘케이크’로 적어야 한다.
- ④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에 따라 ‘디스켓’으로 적어야 한다.
- ⑤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적어야 한다.

0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으므로 ‘바게뜨’가 아니라 ‘바게트’가 맞다.

오답 풀이

- ① 외래어의 한 소리는 늘 일정하게 같은 글자로 적는다. 이에 따라 [ㅍ]는 ‘ㅍ’으로 적으므로 ‘파일’로 표기해야 한다.
- ②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으므로 ‘게임’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③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으므로 ‘파리’로 표기해야 한다.
- ⑤ 외래어의 한 소리는 늘 일정하게 같은 글자로 적는다. 이에 따라 [ㅍ]는 ‘ㅍ’으로 적으므로 ‘파이팅’으로 표기해야 한다.

05 <보기>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5항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함을 말하는 것이다.

06 <외래어 표기법>에서 발음을 중심으로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역시 발음 중심 표기법을 취하고 있다.

07 ‘ㅠ’의 로마자 표기는 ‘you’가 아니라 ‘yu’이다.

08 ‘왕십리’는 표준 발음이 [왕심니]이므로 ‘Wangsimni’로 표기해야 한다.

라구 2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275~278쪽

- | | | | | |
|-------------|-------------|-------------|-------------|-------------|
| 01 ⑤ | 02 ⑤ | 03 ③ | 04 ④ | 05 ⑤ |
| 06 ④ | 07 ⑤ | 08 ① | | |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5 ④
06 ③

01 ‘make’는 [merk]로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으’를 붙여 ‘메이크’라고 표기하게 된다.

02 <외래어 표기법> 용례에 따르면 Martin Luther King은 ‘마틴 루터 킹’이 아니라 ‘마틴 루서 킹’으로 표기해야 맞다.

오답 풀이

- ① Ben Affleck은 ‘벤 애플렉’이 아니라 ‘벤 애플렉’으로 표기해야 맞다.
- ② Tom Cruise는 ‘탐 크루즈’가 아니라 ‘툼 크루즈’로 표기해야 맞다.
- ④ Anthony Hopkins는 ‘안소니 홉킨스’가 아니라 ‘앤서니 홉킨스’로 표기해야 맞다.
- ④ Leonardo DiCaprio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로 표기해야 맞다.

03 ‘물오리바위’는 ‘Muroribawi’로 표기해야 맞다.

오답 풀이

- ① ‘독도’는 표준 발음이 [독토토]이지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Dokdo’로 표기해야 한다.
- ② ‘닥바위’는 표준 발음이 [닥빠위]이지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닥바위]를 기준으로 해서 ‘Dakbawi’로 표기해야 한다.
- ④ ‘코끼리바위’는 표준 발음이 표기와 같으므로 ‘Kokkiribawi’로 표기해야 한다.
- ⑤ ‘독립문바위’는 표준 발음이 [동님문바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Dongnimmunbawi’로 표기해야 한다.

04 ‘삼죽면’은 불입표 앞뒤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Samjuk-myeon’으로 표기해야 한다.

05 외래어는 우리말에 적당한 표현이 없을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말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외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이다.

06 ‘매뉴얼’의 순화어로는 ‘설명서’, ‘안내서’, ‘지침’ 등이 있다.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④
06 ⑤ 07 ④ 08 예시 답안 ‘버스’는 외래어의 1 음운은 1 기호로 적는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표기한 것이지만 ‘라디오’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는 또 다른 외래어 표기 원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버스’와 다르게 관용에 따른 표기를 하게 되었다. 09 ⑤

01 ‘벌어지다’는 ㉠에 해당하는 예로 앞말의 본뜻인 ‘벌다’가 유지되고 있다.

02 ‘맛있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마딛따]로 발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마싣따]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딛따]와 [마싣따]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어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03 ‘빠꼭’이라는 어근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으므로 ‘빠꾸기’라고 표기한다.

오답 풀이

- ① ‘오뚝’이라는 어근에 ‘-하다’가 붙어 ‘오뚝하다’라는 용언으로 사용된다.
- ② ‘살살’이라는 어근에 ‘-거리다’가 붙어 ‘상대편을 계속하여 피거나 상대편에게 눈웃음을 치며 알랑거리다’는 뜻의 ‘살살거리다’로 사용된다.
- ④ ‘두드러기’가 어근과의 연관성이 강하게 확인된다면 ‘두드럭이’라고 표기될 것이다.
- ⑤ 개구리가 잇따라 우는 소리를 나타낸 ‘개굴개굴하다’라는 말은 있지만, ‘개굴’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말이 아니다. 따라서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다.

04 깨끗하다의 ‘끗’에서 나는 된소리는 첫음절의 ‘개’와 두 번째 음절의 ‘ㅡ’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에 해당한다. ‘훨씬’은 받침 ‘ㄹ’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산뜻하다’는 ㉡, ‘어깨’는 ㉠에 해당한다.
- ③ ‘해쓷하다’는 ㉠에 해당한다. 그러나 ‘썩썩’은 [한글 맞춤법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이따금’은 ㉠에 해당한다. 그러나 ‘딱지’는 [한글 맞춤법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담뱃’은 ㉡, ‘거꾸로’는 ㉠에 해당한다.

05 ‘-던’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과거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혹은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未完)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반면에 ‘-든’은

‘-든지’의 준말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그러므로 ‘생각하던’이 아니라 ‘생각하든’으로 쓰는 것이 맞다.

06 우리말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을 받침의 발음에 쓰도록 하였으므로 <외래어 표기법>의 받침 표기 규정과 차이가 있다.

07 된소리되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08 ‘버스’는 외래어 표기의 일반적인 표기 원칙에 따른 예이고 ‘라디오’는 외래어 표기 원칙 가운데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장 제5항의 관용에 따른 표기 원칙의 예를 따른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외래어 표기법>의 두 가지 원칙을 주어진 사례에 맞게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6점
<외래어 표기법>의 두 원칙을 언급했으나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외래어 표기법>의 두 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만을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	1점

09 포르투갈어 ‘pao’에서 비롯된 ‘뽕’을 예외적으로 된소리로 표기하는 이유는 ‘뽕’은 외래어로서의 인식이 약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써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깸’, ‘빠라’, ‘뽕치산’ 등이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287~291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④

06 ③ 07 ④ 08 ② 09 ④ 10 ⑤

11 **예시 답안** (나)는 (가)와 달리 말로 내용을 전달하며, 화면이 나지막 등을 보조적 전달 수단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2 ⑤

13 ② 14 ① 15 ④ 16 ④ 17 ③

01 이 글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자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삼국 시대에 이두, 구결, 향찰과 같은 표기법이 등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한자의 도입은 삼국 시대보다 더 이전 시기였을 것이다.

02 이두에 토를 붙일 때에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했다.

03 ㄷ의 ‘便便安한’에서 첫음절의 모음 ‘ㅑ’는 음성 모음이고 두 번째 음절의 모음 ‘ㅓ’는 양성 모음이다. 이를 통해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ㄱ의 ‘기쁜’과 ‘브룩매’에서는 ‘깊-’과 ‘브름’이라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 ㄱ의 ‘불휘’를 통해 이 시기에는 현대 국어에서 주격 조사 ‘가’가 쓰여야 할 자리에 ‘ㅇ’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ㄴ의 ‘빅싱’과 ‘홍배’에서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자음인 ‘ㅇ’과 ‘ㅎ’를 확인할 수 있다.
- ㄷ의 ‘뿌매’, ‘썩미나라’에서 ‘ㅃ’, ‘ㅈ’이라는 어두 자음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04 ‘ㅁ술’>ㅁ을’에서 ‘ㅅ’의 소멸을 확인할 수 있다.

05 ‘보기가’에서 주격 조사 ‘가’의 사용과 명사형 어미 ‘-기’의 사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06 (가)의 ‘니르고져’는 현대 국어에서는 ‘이르고자’이다. 아직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의 ‘니근’도 현대 국어에서는 ‘익은’으로 표기하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가)의 ‘ㅁ’, ‘ㅃ’, ‘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나)에서도 ‘ㅈ’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나) 모두에서 거듭 적기 표기를 발견할 수 없다.
- (나)의 ‘아당ㅎ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 (가)의 ‘퍼디’를 보면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역시 구개음화가 나타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07 이어 적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방식이고 끊어 적기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표기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 ㉡, ㉢은 이어 적기 표기이고 ㉣, ㉤, ㉥은 끊어 적기 표기 방식이다.

08 지역 방언의 사용을 통해 인물의 천연덕스러운 면모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9 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 부모에게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해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 (가)에서는 영화 파일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불법으로 유출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왜 유출되었는지,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1 (가)는 기사문이고 (나)는 보도문이다. 보도문은 기사문과 달리 구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보도를 할 때 음성 외에도 화면, 자막 등을 활용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말로 전달된다는 특징과 화면, 자막 등의 보조 수단이 함께 사용됨을 모두 서술한 경우	5점
말로 전달된다는 특징과 화면, 자막의 사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점
말로 전달된다는 특징과 화면, 자막의 사용 중 한 가지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점

12 제17항의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먹지요?’와 같이 의문형 어미 뒤에도 결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어간이 표시하는 어휘적 의미와 어미가 표시하는 문법적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② ‘드러나다’, ‘쓰러지다’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③ ‘이리로 오시오’의 ‘-오’는 종결 어미이다. 그러므로 제15항 붙임 2를 적용해 [오시오]로 소리 날지라도 ‘오시오’로 표기해야 한다.
- ④ 제17항의 어미 뒤에 덧붙는 ‘요’는 보조사이지만 제15항 붙임 3에서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의 ‘-요’는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서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이다.

13 수정 전인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가 올바른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이요’는 연결형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3에 근거해서 ‘이요’로 적어야 한다.

14 발 아래[바다래]의 경우 ‘발’의 받침 뒤에 ‘ㅌ’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아래’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값있는[가빈는]’은 겹받침 ‘ㅃ’ 중 ‘ㄴ’만을 옮겨 발음한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③, ⑤ ‘뭉이’와 ‘값이’는 형식 형태소와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없다.

15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마딤따], [머딤따]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의 실제 발음도 고려하였기 때문에 [마싣따], [머싣따]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16 미션이는 외래어 표기 세칙 중 [ʃ]가 모음 [i]와 결합할 때는

‘시’로 적는다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지우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3항인 받침에는 ‘ㄱ, ㄴ, ㄷ, ㅂ, ㅅ, ㅇ’만을 쓴다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태완이는 <외래어 표기법> 제1장 제5항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17 ‘알약’은 ‘ㄴ’ 첨가에 이어 유음화가 일어나 [알랏]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allyak’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놓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노타]로 발음되므로 ‘nota’로 표기해야 한다.
- ② ‘신라’는 유음화가 일어나 [실라]로 발음되므로 ‘Silla’로 표기해야 한다.
- ④ ‘팔당’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팔땅]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Paldang’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⑤ ‘해돋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해도지]로 발음되므로 ‘haedoji’로 표기해야 한다.

5 언어와 매체에 대한 태도

(1) 언어생활의 성찰

꼭지 시험

298쪽

01 (1) ○ (2) × 02 (1) 어문 (2) 외래어 (3) 파급력

탐구

언어생활의 성찰

299~301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④ 05 ④

01 언어생활은 관습적 행위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 행위가 바르고 적절한지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언어생활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

02 번역 투의 표현 사용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03 <보기>와 같은 차별적 언어의 사용은 듣거나 읽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04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생활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직접 노출하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 의식이 약화되어 언어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답 풀이

- 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 ② 상대방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
- ③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 ⑤ 익명성으로 인해 먼 대면 소통보다 생각이나 감정 표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05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언어 표현은 우리말을 더욱 풍부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답 풀이

- ①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생활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 ② 인터넷 공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 ③ 인터넷 공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은 언어생활의 성찰과 무관하다.
- 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활동 연구

302~305쪽

01 ④ 02 아내와 의논한 후 연락하겠습니다.
03 전자 우편(이메일)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04 ③
05 ④ 06 파급력 07 ③ 08 ⑤

01 ‘내가 하고 싶은 말은’이라는 주어와 ‘사랑한다’는 서술어는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로 바꾸어야 적절한 표현이다.

02 ‘집사람’은 자기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지만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여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인 ‘아내’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03 ㉠은 지나친 줄임말과 예의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자 우편(이메일)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로 바꾸어야 적절한 표현이다.

04 이 전자 우편을 받는 대상은 선생님이고, 보낸 목적은 수행평가 보고서에 참고할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 쌤’과 같은 줄임말이나 ‘레알 대박 헐 감사요’와 같은 예절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인터넷 공간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언어는 우리말을 풍부하게 해 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06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생활은 많은 사람에게 쉽게 전달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07 ‘여의사’, ‘여선생님’ 등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담긴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Good morning.’이라는 영어 표현을 번역한 것이다.

- ② ‘짱나다’라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④ ‘hot’, ‘item’, ‘get’ 등의 영어 단어를 무분별하게 섞어 쓴 표현으로,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⑤ 영어의 ‘too ~ to ~’(아무리 ~해도 ~지 않다) 표현을 번역한 것이다.

08 영어의 ‘make’를 번역한 ‘만들다’를 사용한 번역 투 표현이다. ‘그 일이 나를 행복하게 했어.’ 또는 ‘그 일로 인해 행복해졌어.’ 정도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소단원 평가 문제 307~308쪽

01 ② **02 ①** **03 [예시 답안]** 상대방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04 ② **05 ②** **06 ③**

07 [예시 답안] 번역 투의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08 ④ **09 ②** **10 ①**

01 언어생활은 관습적 행위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가 바르고 적절한지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02 ‘장님’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다.

03 매체 언어생활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규범이나 언어 윤리에 대한 의식이 약화된다.

채점 기준	배점
매체 언어 사용에서 언어 윤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점
매체 언어 사용에서 언어 윤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했으나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2점

04 ‘~을 하다’라는 불필요한 문장 성분이 들어 있다. ‘열람실 내에서는 잡담과 음식물 섭취를 금한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05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신조어는 우리말을 풍부하게 해 주는 긍정적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06 ‘카페’는 줄임말이 아니라 영어 단어인 ‘cafe’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어처럼 쓰이는 외래어에 해당한다.

07 번역 투의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오늘 회의의 안건은 모두 네 가지이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번역 투’, ‘피동 표현’이라는 말을 모두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점
‘번역 투’와 ‘피동 표현’이라는 말 중 어느 하나만을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3점
‘번역 투’와 ‘피동 표현’이라는 말 중 어느 하나만을 포함하고 하나의 문장 형태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08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메신저에 초대하는 행위는 인터넷 폭력에 해당한다.

09 ‘가든파티’는 ‘garden party’를, ‘노 개런티’는 ‘no guarantee’를 그대로 옮긴 외래어 표현에 해당한다.

10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 표현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언어 사용의 목적과 맥락, 언어 사용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2)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미래

꼭지 시험 310쪽

01 (1) ○ (2) × **02** (1) 시간, 공간 (2) 신뢰성 (3) 저작권자

탐구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미래 311~313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③** **05 ①**

01 오늘날의 언어생활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오답 풀이

- ① 오늘날의 언어생활은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②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매체도 포함된다.
- ③ 매체의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일 수 있다.
- ④ 정보의 전달 및 교환이 쌍방향으로 일어난다.

02 새로운 매체 언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의사소통 범위를 확장해 준다.

03 한국어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 출품되어 다른 문화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외국의 문화가 우리 언어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우리 언어와 매체 언어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 언어의 발전을 해치는 것과는 무관하다.
- ③ <보기>의 내용을 통해 외국 문화와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 ⑤ <보기>는 우리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외국 영화제에 진출했다는 내용이다.

04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05 유료 웹툰의 화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다.

활동 연구

314~317쪽

- | | | | | |
|-------------|-------------|-------------|-------------|-------------|
| 01 ③ | 02 ② | 03 ① | 04 ② | 05 ⑤ |
| 06 ② | 07 ⑤ | 08 ⑤ | | |

01 (가)는 ‘아름다운 우리말 소개 블로그’이고, (나)는 ‘우리말 학습 애플리케이션’이다. 블로그와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하므로 스마트폰과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하면 (가), (나)를 통해 언제든지 우리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2 순우리말의 사용은 우리 언어문화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03 (가)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매체 문화의 문제점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 ② 정보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정보가 주관적으로 수용되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 ④ 정보의 파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⑤ 특정 언론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②는 (나)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쉽게 복제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절과 같은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05 학교의 연간 일정표는 매해 새롭게 정해지는 시의성 있는 내용이므로 사전의 표제어 설명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6 백과사전에 우리 학교를 표제어로 등재할 때 들어갈 내용은 인터뷰,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사진 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험 조사의 방법은 사회 과학이나 자연 과학 정보를 얻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07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은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지식과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집단 지성의 원리에 근거한 백과사전이다.

오답 풀이

- ②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식과 정보를 올릴 수 있다.
- ③ 정보의 편집과 수정이 자유롭다.
- ④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어 유료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08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에 표제어를 등재할 때에는 독자를 고려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서술하여야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319~320쪽

- | | | | | |
|-------------|-------------|---|--------------------------------------|-------------|
| 01 ① | 02 ④ | 03 ② | 04 예시 답안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 05 ② |
| 06 ① | 07 ④ | 08 예시 답안 기사의 신뢰성과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 | 09 ② | |

01 <보기>는 한국어로 만들어진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매체 언어와 현대 문화의 발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02 전체 공개되어 있는 글이더라도 출처를 밝혀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03 외국인과 소통에 사용되는 것은 외국어이고,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처럼 쓰이는 버스, 피아노, 컴퓨터 등의 단어를 뜻한다.

04 <보기>에서 민지는 자신이 직접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스크랩해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썼으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을 담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서술한 경우	3점
'저작권 침해'와 같이 단답형으로 쓴 경우	1점

05 <보기>는 튀니지 정부의 국민에 대한 강압적 태도가 드러난 사건이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퍼져 나가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튀니지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매체 언어가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 변화를 가져온 사례에 해당한다.

06 <보기>에서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등 우리 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우리 언어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07 인터넷 신문은 검색과 추천, 큐레이션(자료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것) 등을 통해 자신이 보고 싶은 기사를 선별하여 읽을 수 있다.

08 <보기>는 인터넷 기사 중 가짜 뉴스에 관한 글이다. 가짜 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사의 신뢰성,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신뢰성, 정확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서술한 경우	3점
신뢰성, 정확성 중 어느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09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에 정보를 올릴 때는 백과사전의 등재 형식에 맞게 글을 올려야 한다.

대단원 평가 문제 323~326쪽

- 01** ② **02** ① **03** ① **04** **예시 답안** 주어진 '내가 하고 싶은 말은'과 서술어 '바란다'가 호응하고 있지 않다.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05** ② **06** ④
- 07** **예시 답안** 선생님께 ' 쌤, '멜'과 같은 지나친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태도이다. / 선생님, 지난주에 내 주신 숙제 빨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보낼게요). **08** ④
- 09** ⑤ **10** 매체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 11** ② **12** **예시 답안** <보기>는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매체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의 신뢰성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3** ⑤ **14** ⑤

01 번역 투의 표현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것은 욕설이나 비속어, 차별적 표현 등에 해당한다.

02 ㉠은 '노래를'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② '다르다'는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고, '틀리다'는 사실, 이치, 계산, 답 등이 맞지 않다는 뜻이므로 '다르다'가 적절하다.
- ③ '다루다'는 영어 'deal with'를 번역한 표현이고, '-어지다'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다.
- ④ 주체를 직접 높일 때(직접 높임)에는 '계시다'를 사용하고, 주체의 일부분이나 주체와 관련된 사물을 높일 때(간접 높임)에는 '있으시다'를 사용해야 한다.

03 '내조', '외조'는 '(배우자의) 도움'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04 주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맞지 않는 표현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밝히고, 바른 표현으로 고쳐 쓴 경우	5점
<보기>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만 바르게 밝힌 경우	3점
<보기>의 표현을 바른 표현으로 고쳐 쓰지만 한 경우	2점

05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말은 우리말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언어 규범을 파괴하고 세대 간의 의사소통 단절을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06 <보기>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글쓰기에 관한 내용이다. 인터넷 공간은 자신의 신분을 직접 노출하지 않고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규범이나 언어 윤리 의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07 선생님께 ' 쌤, '멜'과 같은 지나친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태도이다. '선생님, 지난주에 내 주신 숙제 빨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보낼게요).'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밝히고, 바른 표현으로 고쳐 쓴 경우	5점
<보기>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만 바르게 밝힌 경우	3점
<보기>의 표현을 바른 표현으로 고쳐 쓰지만 한 경우	2점

08 뽀로로 동영상은 우리 언어와 매체 언어를 바탕으로 제작된 매체 자료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뽀로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뽀로로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뽀로로를 통해 얻은 수익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전 세계의 문화를 획일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뽀로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 ⑤ 뽀로로 동영상과 개인의 매체 자료 생산 활동의 연관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09 <보기>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순우리말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라는 뉴미디어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10 2문단의 ‘매체 언어를 적절하고 ~ 큰 역할을 한다.’에서 알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능력은 매체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11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정보의 수용자이자 생산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인터넷상에서는 정보의 접근과 전달이 용이하다.

- ③ 인터넷상에 게시된 정보들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 ④ 인터넷상에서 접한 다른 사람의 글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⑤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은 우리 개개인이 해야 한다.

12 <보기>는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매체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발생한 일이다. 바람직한 매체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매체 자료의 신뢰성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수용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바르게 밝힌 경우	5점
<보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만 밝힌 경우	3점
<보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만 밝힌 경우	2점

13 저작권자가 공개해 놓은 저작물을 감상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얼렁’은 부산인 ‘얼른’을, ‘시픈데요’는 ‘싫은데요’를 잘못 쓴 표현이다. 과도하게 맞춤법을 파괴한 문장은 사회 구성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